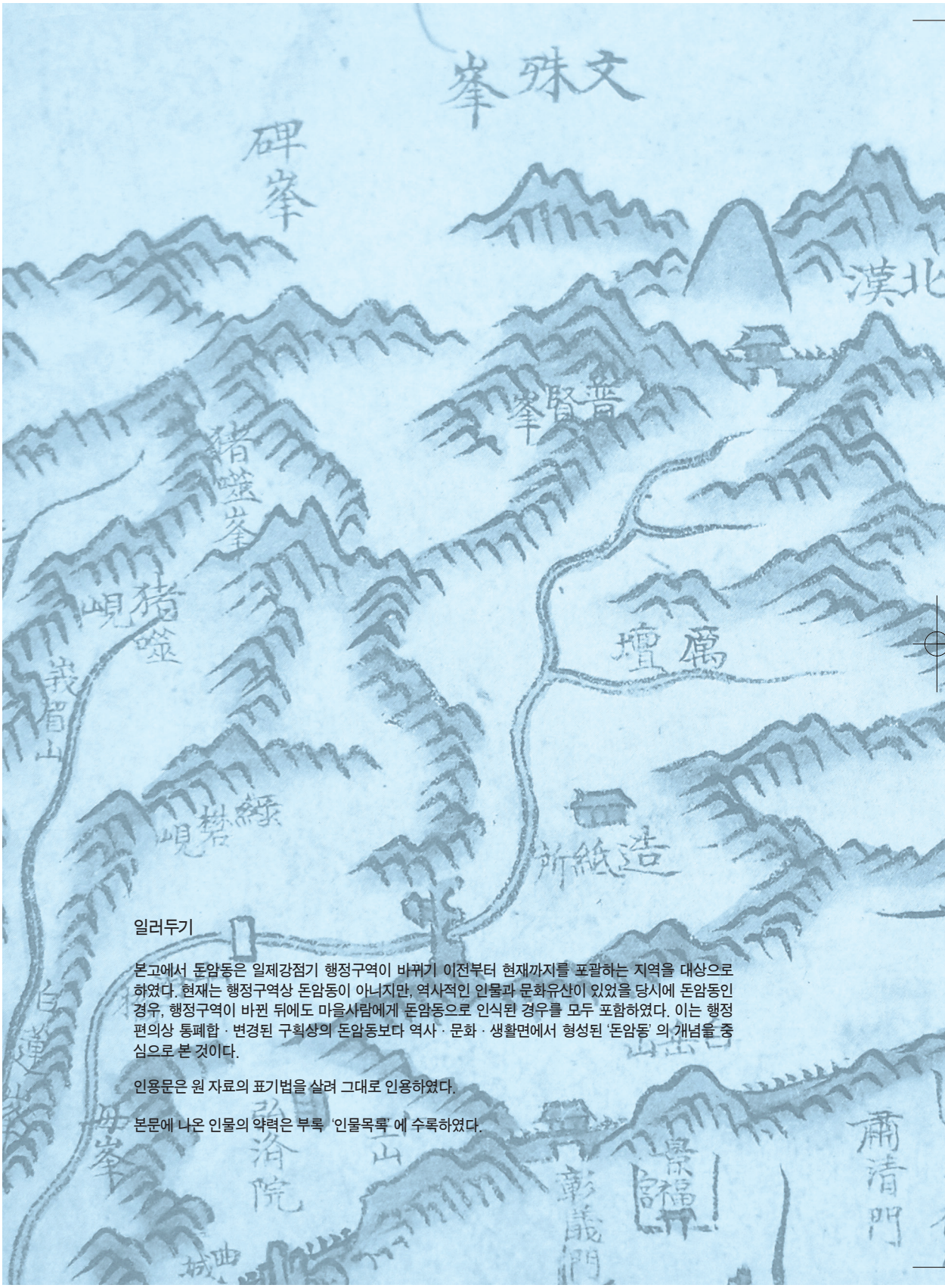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1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2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3

돈암동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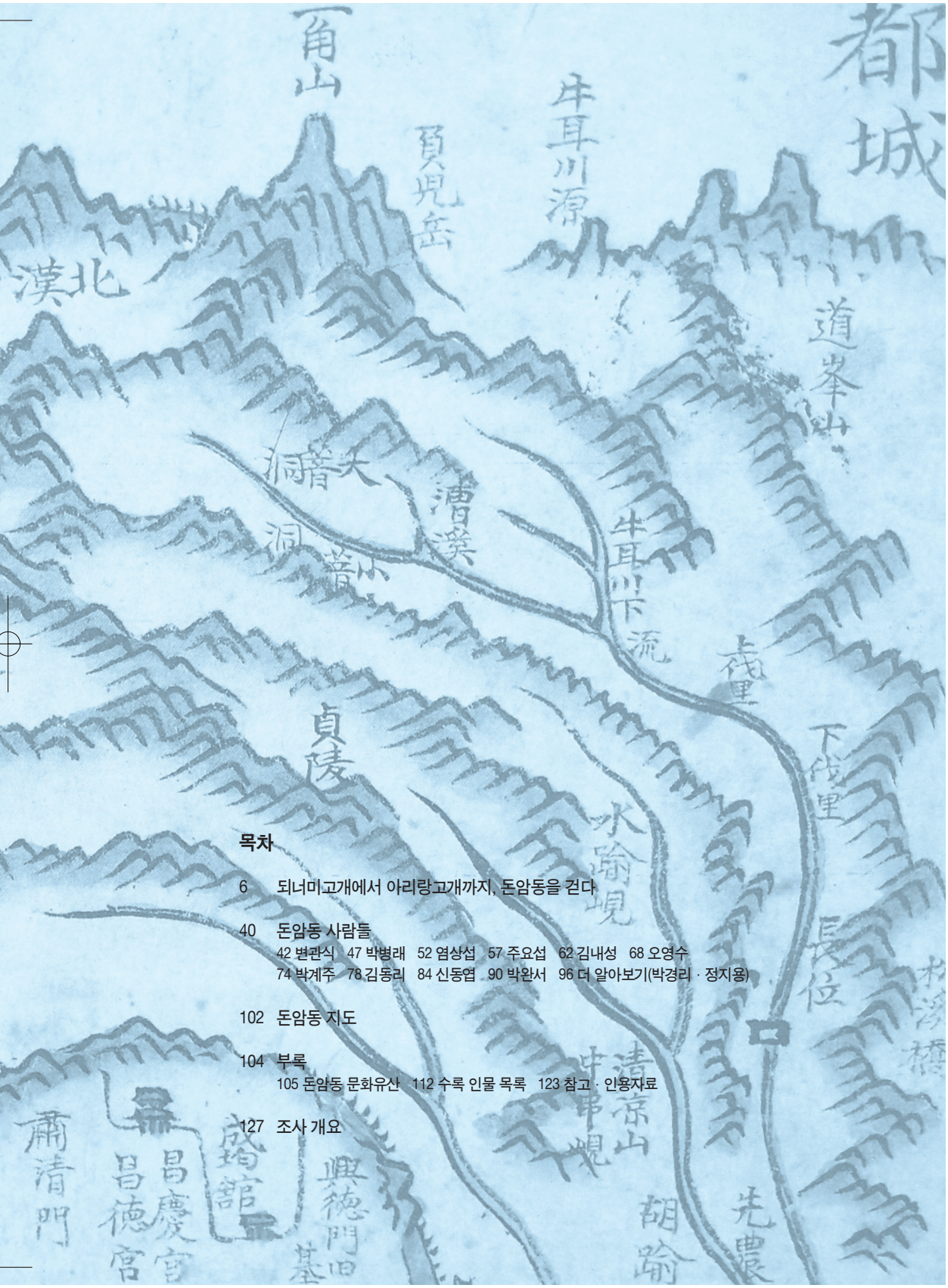
일러두기

본고에서 돈암동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이 바뀌기 이전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는 행정구역상 돈암동이 아니지만, 역사적인 인물과 문화유산이 있었을 당시에 돈암동인 경우, 행정구역이 바뀐 뒤에도 마을사람에게 돈암동으로 인식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행정 편의상 통폐합 · 변경된 구획상의 돈암동보다 역사 · 문화 · 생활면에서 형성된 '돈암동' 의 개념을 중심으로 본 것이다.

인용문은 원 자료의 표기법을 살려 그대로 인용하였다.

본문에 나온 인물의 약력은 부록 '인물목록' 에 수록하였다.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5



목차

6 되너미고개에서 아리랑고개까지, 돈암동을 걷다

40 돈암동 사람들
42 변관식 47 박병래 52 염상섭 57 주요섭 62 김내성 68 오영수
74 박계주 78 김동리 84 신동엽 90 박완서 96 더 알아보기(박경리 · 정지용)

102 돈암동 지도

104 부록
105 돈암동 문화유산 112 수록 인물 목록 123 참고 · 인용자료

127 조사 개요



되너미고개에서 아리랑고개까지, 돈암동을 걷다



돈암동 전경

되너미고개에서 아리랑고개까지, 돈암동을 걷다

삼각산 줄기를 따라 내려와 삼선평을 지나 성 안에 이르는 길에 돈암동이 있다. 그 길 위로 저 북쪽지방 사람들부터 성저십리 사람들, 도성 사람들이 오갔고,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쌓였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한성부漢城府를 두어 한양과 도성 밖 사방 10리(성저십리城底十里)를 관리하게 하였다. 동쪽 성저십리에 속한 돈암동은 미아리고개와 아리랑고개를 경계로 한 마을로 한양과 함경도 원산 등 북쪽 지역과 직결되는 경원가도京元街道였다. 경기-원산을 잇는 길이라는 뜻의 경원가도는 동해안의 해산물과 북방의 토산품, 만주의 교역품이 들어오는 상업로이자 만주 지역에서 한강유역으로 가장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군사로였다.

조선시대 문헌에 돈암동 지역은 적유령狄踰嶺 · 적유현狄踰峴 · 호유현胡踰峴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성들은 되너미고개, 되너미마을, 되너미골이라고 불렀다. 만주 지방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 '되넘[뒈놈,떼놈]' 의 한자어 '호인胡人, 적인狄人' 이 넘어간 고개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지명 유래가 생긴 역사는 병자호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9

인조 14년(1636) 중국 북쪽 지방에 있던 후금後金은 나라 이름을 청淸으로 고치고 조선에게 신하의 나라로서 예를 갖추라고 요구하였다.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에서는 후금과 화친을 반대하는 척화배금斥和排金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일으켜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침입하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으나 40여 일 만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한겨울에 먼 길을 걸어 삼전도까지 간 인조는 청 태종 앞에서 한번 절할 때마다 세 번 머리를 조아린다는 3배 9고두三拜九叩頭로 항복의식을 치러야 했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어야 했고, 소현세자와 봉림 대군, 척화파와 여인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는 아픔을 겪었다.

청나라 군대가 침입하는 주요 길목이었던 이 지역은 병자호란 이후 적유현(또는 호유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1756년 제작된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에는 호유현, 18세기 중반 겸재 정선이 그린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와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에는 적유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성도〉(1860년대)
적유현狄踰峴, 신흥사新興寺, 혜화문惠化門, 성북동城北洞이 표기되어 있다.

'되넘이' 라는 지명은 떼놈이 넘어간 고개라는 뜻 외에도 힘들다는 뜻의 접두어 '되' 에 넘어가다는 뜻의 '넘이' 를 붙여 '힘들게 넘어가는 고개' 라는 뜻도 있다. 험준한 산세가 이어지고 가파른 바위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지형에서 나온 말이다. 또, 되넘이고개를 시작으로 산 넘고 고개 넘어 양주와 포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고갯마루에서 다시 밥을 먹었다고 하여 밥을 '되[다시] 먹는 고개' 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조선시대 돈암동은 한성부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12방坊 중 하나로 한성부의 관할에 속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이에 필요한 기관들을 각 처에 두고 다스렸는데, 조선시대 초기 동소문 밖 지역에는 백성들의 구휼과 병자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인 동활인서를 두었다. 조정에서는 환자와 굶주린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성 바로 밖의 넓은 평지를 동활인서의 터로 잡은 것이다.

지방행정제도가 크게 개편되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새롭게 제정된 공식명칭은 한성부 동서 숭신방 동문외계 돈암리崇信坊 東門外契 敦岩里였다. '돈암' 은 순우리말인 '되너미' 와 유사한 한자 음이자, 도타울 돈敦과 바위 암巖을 써서 지형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돈암동과 미아리彌阿里[1] 두 마을 사이에 걸쳐 있는 되너미고개의 현재 명칭은 미아리고개이다.

더 알아보기

활인서活人署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 혜민서와 동 · 서활인서를 두었다. 혜민서가 약으로 질병을 치료했다면 동 · 서활인서에서는 전염병 환자를 주로 치료했고, 치료와 함께 흉년과 재난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는 활동도 하였다. 동소문東小門 밖에는 동활인서가 있어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았다.

활인서는 1414년(태종 14) 활인원活人院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466년(세조 12)에 다시 활인서로 고쳤다. 활인서에는 의원과 무당[醫巫]을 두어 병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매골승埋骨僧을 배치하여 한성부와 함께 시체의 매장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경도오부.북한산성부도〉(1750년대) 활인사活人寺라고 표기되어 있다.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있다.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있다. 옛 이름은 대비원大悲院이다. 제조提調와 별좌別坐를 두고, 또 의원과 무당을 두어서, 서울 안에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모두 이곳에 모아 놓고, 죽 · 밥 · 국 · 약을 주며, 아울러 옷 · 이불 · 자리를 주어 편하도록 보호해 주고, 만일 죽는 이가 있으면 잘 묻어 준다.

〈세종실록지리지-경도한성부조〉

일제강점기, 동활인서가 있던 자리에는 소를 키우는 목장(돈암리 421번지)이 생겼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평산목장平山牧場은 조선왕실과 총독부의원醫院에 우유를 납품하였다. 평산정길[平山政吉]은 일찍이 조선이 목우업에 유리한 장소라 생각하고 1897년 경성에 건너와 목장을 설립하였다. 그의 아들 평산정십[平山政十]이 대를 이어 목장을 운영하였는데, 1912년 세천[細川]목장을 합병한 뒤 젖소 100여 마리에 한 달 착유량만 40여석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2]

천주교 신자였던 평산정십[平山政十]은 목장사업으로 모은 재산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빈민들이 살 곳을 마련 해 주기 위해 동소문 밖에 있는 군용지 삼선평을 빌리고, 기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2대에 걸쳐 운영된 평산목장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1939년 목장이 있던 터에 집이 들어섰다. 해방 후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이 이 집을 잠시 거처로 삼았다. 이후 이 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준비한 장소이자 근대시기 지어진 한옥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91호 '돈암장' 으로 보전되었다.

1910년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일본은 민족의식과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오백여 년 간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의 모든 기능을 약화시키고, 경기도에 예속시켜 경성부라 하였다. 이에 한성부의 관할이었던 돈암동은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돈암리京城府 崇信面 敦岩里가 되었다.

일본은 창씨개명처럼 우리 고유의 땅 이름을 동洞과 정町으로 바꾸고, 토지를 장악하여 통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돈암동은 경성부에서 고양군으로, 또 다시 경성부 관할에 편입되었고, 명칭은 돈암리에서 돈암정으로 바뀌는 등 변화를 겪었다.

경성 시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발은 193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되었다. 당시 세계공황의 여파로 일본은 경제 위기에 처했고, 이에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중국으로 세력을 뻗어 영토와 자원을 획득하는 대륙침략정책을 시도하였다. 도시의 확장은 이러한 필요성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도시로 편입될 구역과 도로망 구축,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세우고, 1939년 고시하였다. '구릉에 접하는 지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에 대비하여 지역 내 주요 도로 양측을 상업지역으로 하여 부근 발전의 중심으로서 일상생활의 편리에 대비하는 것이 적당하다' 는 내용이었다.

가장 먼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 된 곳은 공업지역인 영등포와 주거지역인 돈암지구였다. 돈암지구는 삼선교에서 미아리고개 어귀, 돈암네거리에서 보문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일대를 모두 일컬었다. 이전까지 마을 밖으로 공동묘지가 있는 시 외곽의 한촌寒村이었던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며 주택지대가 조성되었고, 주택경영회사들은 대

량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량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ㄱ' 자, 'ㄷ' 자형의 구조에 유리나 함석, 차양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기와집들이 골목을 축으로 마주보고 늘어섰다.

그맘때 시골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형님의 처남이 돈암동에 새집을 짓고 살았다. 돈암동은 시골사람 천지였다. 벌판에 자꾸 집이 들어서고 시골의 조그만 부자들이 몰려들었다. 고향에서 일본 사람과 못 사귀어 쫓겨 오는 사람들이다.

최남백, 「식민지」 동아일보 1971.04.22



하늘에서 본 돈암지구

신문 속 돈암동

4년 전 부역확장이 된 이후 인구가 급작이 늘게 되어 주택난은 더한층 심각하게 되었는데 방금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돈암정 안암정 신설정 등지에 있는 지주들이 주택지분양조합을 조직한 후 일반부민에게 주택지를 헐값으로 나누어 주기로 되었는데 10일부터 그 사무를 개시하였다. 당분간은 시가보다 2할 5부나 싼값으로 제공하기로 되었는데 경성부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구획정리구의 토지를 비싼 값으로 매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온당치 못한 거간들을 막기 위하여 토지 상담소를 두고 주택지 매매에 알선을 하기로 되었는데 이번 전기 세 정의 주택지도 거간을 사이에 두지 말고 직접 경성부청이나 조합사무소로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돈암.안암.신설 3정町, 주택지분양개시, 부청이나 주택조합에서 간선〉

매일신보. 1939.04.11

한편, 도시의 성장이 거듭될수록 빈민층이 크게 늘어나는 발전의 양면성이 나타났다. 도시빈민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1930년대 경성부는 궁여지책으로 도시외곽 지역에 토막민을 집단 수용하였는데, 돈암동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 등짐이나 품팔이로 하루벌이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은 개천이나 다리, 성벽 밑, 묘지와 화장장 등 가리지 않고 집을 지었다. 논이 있던 창동 일대에서 볏짚묶음을 구해 지은 맞배지붕의 토막집은 겨우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집이었다.

지붕을 이으려고 이엉이라는 볏짚묶음을 미아리 고개에서 굴려서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창동 일대에서 볏짚이 나온 것을. 다른 데는 소달구지로 되는데 고개는 안 되니까 고개까지 지고 와서 굴려가지고 내려갔다고. 지금 우촌초등학교 그 기슭에 더구나 동북쪽이기 때문에 더 열악하다고.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여기도(미아리고개) 해당지역이고. 태극당 뒷골목, 돈암초등학교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라고 봐야해.

-주민 인터뷰-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며 경성부는 돈암 · 안암 · 신설 등지에 있는 토막촌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땅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집을 헐어버렸다. 쫓겨난 사람들은 더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종암동 모래 강변에 거처를 마련하였지만 이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철거되었다. 갈 곳도 없고, 집을 구할 돈도 없는 빈민들은 철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철거당국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도시빈민촌의 형성과 철거, 그리고 이주와 재형성은 도시개발의 저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으며 경성부는 서울시로 개칭되고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 수도로서 예전 지위를 되찾았다. 돈암정이라는 일본식 동명도 돈암동으로 바뀌었다. 1949년에는 돈암동과 안암동, 숭인면 일부 등을 합쳐 성북구를 신설하면서 행정구역상 성북구 돈암동이 되었다. 이때까지 돈암동은 동소문 밖에서 미아리고개 일대를 일컫던 지명으로 현재의 동소문동, 삼선동, 동선동이 모두 속한 매우 넓은 구역이었다.

더 알아보기

1955년에 들어 「동洞설치조례」가 발표되며 여러 동이 연합되어 있던 동회 및 동연합체가 해체되고 돈암동에서는 동소문동, 삼선1~3동, 동선동, 남선동, 서선동, 북선동, 정화동이 분리되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구획이 변경되었고 현재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에 걸친 산기슭에 걸쳐 있는 돈암동(1,2동)에 속해 있다.





1950년대 돈암동 일대

돈암동 정헌네 집에서 정헌모는 밤새도록 한 잠도 못자고 들락날락하였다. 뜰에 나서면 시내 하늘에 새빨간 불꽃이 충천하는 것만이 보이고 큰길가 가게방으로 들어가 발을 친 창문으로 길을 내다보면 패잔병 행렬이 잠시도 쉬지 않고 외줄로 꾸역꾸역 고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 저 멀리 삼각산 북악산 쪽으로는 몇 쌍의 젯트기가 제비들처럼 오르고 내리는데 소리는 안들리면서도 산 뒤 여기 저기에 시커먼 연기기둥이 올라와서 시내 하늘을 뒤덮은 연기뭉텅이와 합류하려는듯이 천천이 움직이고 있었다.

주요섭, 「길」 동아일보 1953.08.06

자주적인 발전과 사회 안정에 대한 기대도 잠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탱크와 마차, 보병들이 수없이 미아리고개를 넘어 혜화문으로 밀려왔다. 하늘 위로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멀리서 대포소리가 쾅쾅 울리면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다. 동족간의 이념 다툼에서 시작된 전쟁은 UN군과 중공군이 가세하며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북한군은 서울 탈환을 위해 전쟁 막바지까지 남침경로이자 시내 중심부와 가까운 돈암동과 성북동에 주둔하였다. 북한군과 국군은 미아리고개에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다. 1953년 7월 27일, 끝이 보이지 않던 전쟁이 중단되었고, 북한군은 후퇴하며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미아리고개에는 퇴각하는 군인들과 줄에 묶여 북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전쟁의 후유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여인들은 남편과 아들을 잃었고, 남은 사람들은 몸과 정신이 망가졌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과 전쟁빈민, 피난민들은 살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사람들은 폐허가 된 마을에서 고철이나 판자를 주워 모으고, 심지어 공동묘지의 묘비를 가져다 집을 지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도심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돈암동 주변에 남았다. 해방 전부터 빈틈없이 들어선 토막촌과 판자촌이었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1957년 UN군 경제조정관실에서는 미아리에 난민촌을 만들고 난민을 수용하였다. 이듬해 본격적인 난민촌정착 사업을 위해 미아리고개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택지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1912년 경성부 내 조선인의 공동묘지가 부족한 이유로 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미아리 공동묘지가 사라지며 반세기 동안 죽은 사람의 공간이었던 곳이 다시 산 사람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거기는 맨날 산동네라고 그랬는데 차이 많이 났지. 왜냐면은 이(아리랑고개) 가장자리로 다 판잣집 짓고 장사들 하고 그랬어. 'ㄷ' 자형으로 부엌하나 있고 안방, 건넌방, 부엌 이렇게 세 개지. 대부분 집들이 그렇게 생겼지. 그렇지 않으면 'ㅡ' 자로 방이 세 개가 쪼르륵 있고. 가운데 마루 하나 있고 그렇게 있지. 그러니까 문간방도 세주고 또 건넌방도 세 주고 그러고들 살았어.

-주민 인터뷰-



돈암동 산동네집

더 알아보기

돈암동의 학교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이미 거주하는 인가가 수 천호가 넘었는데도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가 부족했다. 지역 유지들이 야학과 강습소를 열었지만 넝마주이나 구두닦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다. 1944년 신설된 돈암국민학교(현재 돈암초등학교)는 미군들이 지어준 건물이 꼭 커다란 깡통을 엎어 놓은 것 같았다고 해서 깡통학교라는 별명이 붙었다. 멀리 돈암동 외곽에 있던 학교까지 다니던 학생들이 새로 생긴 돈암국민학교에 몰리며 한때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다.

엄청 많았어요. 50명. 반도 5반 이렇게 있었어. 6.25 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 결혼한 애가 있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았어. 연령이 한 반에 여섯 일곱 살 차이가 난 사람도 있었어. …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서 미국에서 준 분유를 점심 때 양재기에 들고 큰 솥에 끓인 것을 배급 받아먹고. 학교에서 끓여서 줬다고.

-주민 인터뷰-

그때는 다른 학교도 모두 열악한 환경이었다. 신흥사 근처에 세워진 정덕국민학교(현재 정덕초등학교)는 작은 채석장이 학교 뒤에 있어 발파작업을 할 때면 교실이 흔들리기도 했다. 굴다리 곁을 지나 미아리 고개를 힘들게 올라가면 개운산을 등지고 개운중학교가 있었고, 유난히도 하얀 거대한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 싼 곳에 성신여자중학교가 있었다.

돈암동은 도심과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권을 잇는 길목으로 일찍부터 버스와 전차가 들어왔다. 성북동과 정릉, 종암동과 미아리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권도 교통이 편리한 돈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종로에서 동소문로터리까지 연결되었던 전차는 1941년 을지로4가부터 돈암동까지 운행을 시작해, 1958년에는 서울역까지 연장되었다. 전차종점에는 바쁜 일상을 시작하고 끝내는 이들로 붐볐고, 종점 앞 태극당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버스는 전차가 다니지 않는 구간을 잇는 교통수단이었다. 돈암동 종점에 내리면 버스로 갈아타고 안암, 종암동으로 갈 수 있었고, 성북천을 따라 다니던 버스는 청량리와 서대문 구간의 전차 정류소까지 연결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차량을 개조하여 만든 합승버스나 합승택시가 시민들의 발이었다. 합승버스는 미군부대에서 쓰던 군용차에 드럼통을 두들겨 만든 지붕을 씌운 차였다. 버스차장은 승객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있는 힘껏 사람들을 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출발하라는 뜻의 '오라이' 를 외치며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합승택시는 합승버스보다 작은 차로 좁은 길도 다닐 수 있었다. 버스처럼 행선지와 탑승인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작은 9인승 차에서 점차 커져 19명까지 태울 수 있었다. 합승택시도 버스 차장처럼 호객꾼이 있어 택시 앞에서 승객을 모으곤 했다. 지금과 같은 승용차 택시도 더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합승하는 일이 잦았다. 국산차 1호 '포니' 가 택시의 주류를 이루었던 1980년대 초 기사와 손님이 합승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교통체계와 도로사정은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차가 많아지며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던 전차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남긴 채 1969년 철거되었다. 출퇴근길 버스는 늘 만원이었다. 엔진 상태가 좋지 않았던 버스들은 가파른 미아리고개를 넘을 때면 종종 시동이 꺼져 후진과 정차, 출발을 반복해야 했다.



합승택시

근숙이 언니네는 돈암시장 뒷골목에 있었다. 오래된 낡은 집이었지만 터가 넓고 부엌이 따로 달린 방이 많은 게 세놓아 먹기 좋게 생긴 집이었다. 전에 세 살던 사람 중엔 피난 갔다 돌아온 집도 있어서 그 큰 집에 근숙이 언니 혼자 있어도 별로 휘해 보이지 않았다. 돈암시장 안에도 그 언니네 소유의 점포가 여러 동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 점포는 세입자가 환도를 하지 않아서인지 거의 닫힌 채였고, 노점이 더 성업 중이었다. 장사란 비슷한 업종끼리 서로 어울려야 손님이 꼬이는 법이라, 포목이나 귀금속, 아동복, 메리야스, 바느질집, 누비이불집 등 깨끗하고 값나가는 물건을 취급하던 가게 앞을 푸성귀, 생선, 잡채나 순대 따위 즉석 먹을 거, 툭하면 들고뛰는 미제 장수 등 노점들이 차지를 하니까 점포에 세 들려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시장이 서기 마련이었다.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1939년 이후부터 공공단지로 지정된 곳에 관공서와 학교가 생기고, 삼선교에서 돈암교에 이르는 도로 양측에는 일률적인 모습의 2층 한옥상가가 생겨났다. 영세 소매상인의 터전이었던 한옥상가는 정면 'ㅡ' 자형의 2층 한옥 건물 뒤로 'ㄱ' 자형 살림채가 이어진 구조였다. 1944년에는 13개의 점포가 들어선 공설시장 건물이 세워졌고, 시장건물 주변 개천을 따라 사설시장이 형성되었다. '안시장' 이라고 불린 공설시장보다, 골목주변으로 점포와 노점이 들어선 '바깥시장' 이 훨씬 번화하였다.

특별한 밑천도 연고도 없었던 피난민과 농촌이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 준 돈암시장은 삶의 터전이자 역사였다. 돈암동 사람들은 지겟짐을 진 삯으로, 시장 바닥에서 푸성귀와 주전부리를 판 돈으로,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해 번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갔다. 돈암시장에서 잡곡을 싣고 왕십리 중앙시장으로 곡물을 팔러 다니는 사람, 뚝섬 살곶이다리 밑에서 푸성귀를 받아 돈암시장 바닥에 놓고 하루벌이 장사를 하는 사람, 미제 물건을 구해 높은 이문을 남겨 파는 사람 등 가지각색의 삶이 돈암시장 속에 들어있었다.

60년 전에는 태극당 자리 거기서 뒷길에 새벽이면 나무를 실을 지게 짐이 쭉 받쳐서 있었어. 배달거리가 멀어도 팔수만 있다면 좋아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돈암시장 앞 길까지 좌판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팔 잘린 사람이 의술로 곡갱이를 이어서 (후크선장처럼) 좌판을 깨고 부수고 그런 풍경이 벌어진게 돈암시장이야.

-주민 인터뷰-



20~30년 전 돈암시장 쪽으로는 쉐타 뜨는 집, 실 타는집, 솜 트는 집이 늘어서 있었고 하천변으로 도매시장이 있어 소금을 팔고 하는 집들이 많았다. 돈암시장을 시장아파트라고 불렀던 기억이 난다. 2,3층이 있고 1층에 상점들이 문을 열었다. 지금 동대문시장 뒷골목의 상가들과 분위기가 비슷했다.

-주민 인터뷰-

신문 속 돈암동

추석명일을 치르기 위하여 서울시내에서만도 소를 1천 2백마리나 잡었건만 시내각처의 고기깐 앞엔 10일밤까지도 일대 난장판을 이루었겠다. 특히 돈암시장내에 있는 푸주간 앞에는 밤중까지 고기한칼을 사고자 열을지어 섯는데 새치기하는 친구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나중엔 치고 꼬집고 욕설을 퍼붓고 수라장화하였었다고. 새치기 때문에 고기를 못산 아낙네나 욕을 주어 먹고 매를 맞아가며 고기를 사려던 아낙네나 즐거운 명절이 못되었을테니 새치기라는 놈은 이렇게도 못쓸놈! 어는때 어디서나 속히 없애야 할일!

〈잠망경潛望鏡〉 경향신문 1954.09.12

교통과 상업시설 외에 여가를 즐기고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곳곳에 생겨났다. 1920년대 후반부터 아리랑고개와 신흥사(흥천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주변으로 고급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서울 근교 신흥사, 청량사 주변 마을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요릿집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유흥객들이 북적여 절을 찾는 신도나 마을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였다. 세속을 피해 산으로 들어간 절이 유흥업소에 둘러싸여 목탁소리 보다 장고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고급승용차가 줄을 이었던 풍년각, 대명각 같은 요정은 1940년대 이후 점차 일반 연회장으로 바뀌고, 1960년대 녹음정, 반월각, 삼호장, 취선정 등 십여 개가 넘는 음식점이 생겨 회갑잔치나 동창회, 친목 모임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인기가 좋았다. 1970~80년대까지도 '신흥사 회갑잔치' 는 명성이 자자했다. 돈암동 전차 종점에 있던 태극당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회장소였다. 태극당 제과점과 같은 건물에 있던 예식장은 돈암동에 있는 유일한 예식장이었다.

선배 형의 부친이 회갑이라고 해서 돈암동의 무슨 장莊인가를 찾아갔다. 비탈길을 한참 오로노라니 환갑잔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양韓洋 절충식의 건물들이 몇 채 옹송그리고 있었다. 풀장만큼한 방안에는 테이블마다 손님이 달랐다. 이곳도 예식장처럼 시간제인지 연방 파장하여 나가는 테이블도 있고, 새로 자리를 잡고 앉는 곳도 있었다. 순대를 썰어 파는 시장판처럼 우세스러웠다.

신상성, 〈회갑과 구두〉 동아일보 1980.08.30

그 때 그 모습

특별한 놀이터가 따로 없었던 아이들은 시장과 전찻길, 산과 계곡을 다니며 자기들만의 놀이거리를 찾았다. 전찻길이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 전찻길에 못을 두면 전차가 지나가면서 마찰열이 생겨 자석의 성질을 뗬다. 과학의 원리를 모르던 아이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놀이감이었다. 여름이면 개천에서 물장난을 치거나 가재나 미꾸라지 따위를 잡으러 온 동네를 다녔다. 눈이 오는 겨울이면 언덕길 한편에 일부러 눈을 다져 빙판길을 만들고 추위도 잊은 채 구르고 넘어지며 미끄럼을 탔다. 대나무를 쪼개 신발 바닥에 묶은 일명 대나무스키는 고학년 어린이들의 특권이었다.

정월 15일이 되면 돈암동 패와 창신동 패가 나뉘어 크게 돌싸움이 일어났다. 어린 꼬마들은 돌을 한가득 모아 머리에 수건 띠도 두르고 나름 전사로서 멋을 한껏 부린 형들에게 전해줬다. 이빨이 깨지고 눈이 터지고 난장판이 되었지만 마을의 연례행사였다.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고급요릿집 아이들이 검정고무신을 신을 산동네 아이들을 흑전사라 놀려댔다. 장난감이 없었던 시절 아이들은 나무를 잘라 칼과 활을 만들어 싸움을 벌였다. 나중에 애들 싸움이 어른싸움으로 번져 요정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쫓겨나는 일도 생겼다고 한다.[3)]

일 년에 두 번씩 돈암시장 뒤 넓은 공터에서는 서커스단의 공연이 펼쳐져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들었다. 높은 줄 위에서 묘기를 펼치는 배우들의 모습에 환호를 보내고 놀이꾼의 재미있는 몸짓과 말에 웃음을 터트리곤 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몰래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도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이었다.

1948년 돈암교 전차정류소 앞에는 동도극장이 문을 열었다. 당시 극장은 개봉관과 재개봉관으로 구분되었고 상영 순서와 입장료 액수에 따라 2~5번으로 다시 나뉘었다. 개봉관은 사람이 많은 도심에 있었고 재개봉관은 시 외곽에 들어섰다. 동도극장은 시내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재개봉관으로 3번관에 속하였다. 전국 개봉관에서 모두 상영이 끝난 후에야 재개봉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그만큼 가격도 저렴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시설도 기회도 많지 않았던 시절 동도극장은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동도극장의 영어 약자를 딴 'DDT(Dong Do Theater) 극장' 이라는 별칭으로 통했다.

한 번 극장표를 끊고 들어가면 계속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그 시절, 주머니가 가벼웠던 대학생들은 아침 9시 반에 표를 사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나오기도 했다. 고등학생들도 공짜표를 얻거나 돈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학생 모자를 감추고, 교복의 흰 깃을 옷 속에 접어 넣고 어른인 척 하며 동도극장으로 향했다. 동도극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만들었고, 젊은이들이 꿈을 키웠으며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였다. 1981년 문을 닫은 이후 가구점의 창고로 쓰이다 1985년 완전히 상가로 바뀌었다. 현재 외환은행 삼선교 지점이 있는 건물이 동도극장의 자리이다.

개봉관에서 실컷 상연한 다음에야 차례가 돌아올망정, 동도극장은 명화만 틀었지. 거기서 〈미녀와 야수〉도 보고, 〈자건거 도둑〉도 보고, 마르셀 까르네 감독의 〈인생유전〉도 보았지. 새파란 나이의 우쭐함으로, 다 된 인생들에 대한 가련한 감동을 어쩌면 자네와 함께 그때 나누었는지도 몰라. 극장 건너 굴 속 술집, 일제시대 방공호에서 뒤풀이를 했던가? 안 했던가? 지금처럼 값이 오만하지 않았던 굴비를 안주 삼아.

최일남, 「돈암동」 현대문학, 2004.11



동도극장 신장개관 광고



더 알아보기

영화 〈아리랑〉과 아리랑고개

아리랑고개는 일제강점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에서 상영된 흑백 무성영화 〈아리랑〉의 촬영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아리랑〉은 1926년 나운규 감독이 만든 첫 영화이다. 일제의 무력침탈로 식민지가 된 당시 상황과 식민지 현실과 우리 민족의 울분을 영화에 옮겨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 막바지에 아리랑의 영진은 일본 순사의 앞잡이를 낫으로 찔러 죽이고 밧줄에 묶여 아리랑고개 너머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온다. 객석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고 관객 모두가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을 따라 불렀다고 한다.

영화를 본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세상을 떠났고, 단성사에서 상영된 이후 영화필름도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주인공 신일선 씨의 기억으로는 "신설동에서 전차를 내려 호떡을 사먹으며 걸어 지금의 고려대 후문쯤의 고개에서 촬영했다"[4]고 하지만, 정확한 촬영 위치는 알 수 없다. 한편, 홍봉진(1903~1979)이라는 사람이 쓴 『양촌일지陽村日誌』에 아리랑고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동대문 밖 삼선평三仙坪을 지나 신흥사 옆으로 '아리랑고개'를 넘으면 옥수청류玉水淸流가 흐르는 시냇가에 기암奇岩과 청송靑松으로 울鬱을 삼아 깨끗이 지어 놓은 상춘원賞春園을 찾아오시면 미식주효美食酒肴로 값싸게 대접하여 드리겠다.

이는 1929년 홍봉진이 숭인면장을 지내고 요릿집 '상춘원'을 연 부호 김씨의 부탁을 받아 광고를 만들면서 고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당시 상춘원이 신흥사의 고갯길로 올라가 후미진 곳에 있어 찾기가 어렵자, 홍봉진은 고갯길 당집 앞 노송의 가지에 '아리랑고개'라고 쓴 간판을 매달고 광고문에 상춘원을 '신흥사 옆 아리랑고개'에 있다고 알렸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영화 〈아리랑〉에 나오는 아리랑고개가 이곳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5] 홍봉진은 영화와 관계없이 붙인 이름이라는 기록을 남겼으나, 상춘원의 선전 광고문을 걸었던 고개를 지금까지 아리랑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화 〈아리랑〉을 기념하기 위해 돈암동과 정릉 사이에 있는 아리랑고개에는 영화의 거리와 아리랑시네센터가 조성되었다.

1960~70년대는 교통체계와 상수도 시설 정비 등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돈암동 고지대까지 버스가 연장되었고, 물탱크가 설치되며 식수 사정도 나아졌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마당에 펌프를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였다. 땅 속에서 올라온 물은 여름이면 냉장고 물 보다 시원했고, 겨울이면 모락모락 김이 날 정도였다.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개발되었다. 산을 깎고, 개천을 덮고, 판잣집을 들어낸 자리에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지와 현대식 상가가 우뚝 솟았다. 일 · 이층 건물이 어깨를 나란히 하던 거리가 높은 빌딩으로 가려졌고, 마을과 사람들의 삶은 빠른 변화에 휩쓸렸다. 주택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3천 가구가 넘는 세입자가 터전을 잃었다. 돈암동 606번지 산꼭대기 주민들은 임시천막을 치고 추위에 떨며 지내거나 철거민들이 임시로 정착한 우면동으로 쫓겨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았다. 1970년대 초부터 재개발 계획이 세워졌지만 거주자들의 반대로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개발이 되었다.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점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안시장과 바깥시장도 돈암제일시장으로 합쳐졌다.

돈암동 외곽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거주민과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1985년에는 개통된 지하철 4호선은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과 후를 나눌 만큼 큰 변화를 불러왔다. 지하철역 주변으로 상점과 노점상이 빼곡하게 들어섰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 중앙로 양쪽으로 늘어서있던 양장점은 옷가게로 바뀌며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맞추어나갔다.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고 멋을 낸 여대생들이 가득했던 거리는 다양한 개성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젊음의 거리'가 되었다.

우리끼리는 지하철 4호선이 개통 된 전 후로 돈암동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구분해요. 미아리고개에 있던 육교도 헐렸고, 땅 값이 오르며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동네가 분산되었어요. 특히 아파트가 생기면서 부터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 같아요.

-주민 인터뷰-

미아리고개에 서린 한과 난민촌의 슬픔, 전차 종점의 낭만은 이제 잊혀진 모습이다. 미아리고개와 아리랑고개, 삼선평 너른 터까지 아우르던 돈암동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고 옛 모습을 잃었지만, 돈암동 이야기는 사람들의 추억 속에 계속 흐르고 있다.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38



돈암동 거리

박경리



자주색 두루마기 펄럭이고

구두 소리 울리던

돈암동 거리엔 바람이 불었다

크다만 플라타너스 잎이

소리 내어 떨어지고

청춘의 쓰라림이 맴을 돌았다

돈암동 바람 불던 거리

돈암동 사람들

돈암동은 한 때 문화예술인촌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삶과 현실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문학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던 장소 돈암동.
이제 그 자취는 남아있지 않지만,
옛 기억을 찾아 돈암동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보자.



돈암동 골목에서 박완서

(1)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1899~1976

한국산수화 4대가로 꼽히는 소정 변관식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전통을 계승하면서 독창적으로 재창조한 화가이다. 1899년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난 변관식은 조선의 마지막 화원이자 남종화의 대가인 소림 조석진의 외손자이다. 열두 살이 되던 해 외가가 있던 서울 송동(명륜동과 혜화동에 걸쳐 있던 동네)으로 상경하여 소림 문하생들의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웠다. 화가의 삶을 대물리고 싶지 않았던 소림은 이를 완강히 반대했지만 결국 서화미술원의 문하생으로 변관식을 받아들여 한국화를 가르쳤다.

그는 비슷한 또래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전통 양식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화풍畵風을 만들고자 하였다. 청전 이상범, 심산 노수현, 묵로 이용우와 1923년의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화 동인회인 동연사同硯社를 만든 것도 평범한 자연 풍경에 관심을 기울이며 새로운 한국화를 그려보려는 노력이었다. 모임은 다음해 해체되었지만 전통을 새롭게 이으려는 노력과 교류는 계속되었다.



〈외금강 구룡폭포〉, 1957

1925년 일본 동경 미술학교 청강생으로 유학하여 배움의 폭을 넓혔고, 귀국 전후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고, 개인전도 열며 작품을 세상에 선보였다. 1938년부터 8여 년 간 금강산을 유랑하며 산세와 바위, 나무의 형태들을 관찰하고 밑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나라 산하를 느꼈고, 자신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조선 후기 직접 눈으로 담은 풍경을 화폭에 그려낸 겸재 정선, 표암 강세황도 금강산의 실경을 즐겨 그렸다. 금강산을 보지 못한 사람도 그림만으로 금강산에 가본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표암처럼 변관식도 우리나라 산수의 기운을 사실적이고 생동적으로 묘사하였다. 1950년대부터 금강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 1953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외금강 옥류천〉 작품을 그려 보내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 이하 국전)의 심사위원과 추천작가로 미술계에서 활동하던 중 파벌과 비리로 공정성을 잃은 국전에 반기를 든다. 1955년 10월 28일자 동아일보에 '국전을 앞두고 편파적인 심위구성, 그 비공정에서 파생될 화단의 암癌' 이란 논단으로 국전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였다. 변관식이 1957년 10월 21일자 연합신문에 기고한 '공정성 잃은 심사' 라는 글을 계기로 불만의 목소리들이 일제히 터져 나오며 반反 국전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연과 학연을 심사에 반영하는 잘못된 심사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 남종산수화풍을 제외한 작품들은 심사에서 배제되었다. 1967년에는 천경자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채색계열 작품을 그리는 화가들이 대거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젊은 작가 20여 명은 '제16회 국전 동양화부 낙선 작품전' 을 덕수궁 중화문 옆 건물에서 열어 국전의 편파적인 심사에 반발하였다. 변관식은 전시 개막식에 찾아가 젊은 작가들을 격려하였다.

기득권의 잘못된 행태에 등을 돌려 미술계에서 활동을 접고 작품활동에 힘을 쏟으며, 한편으로는 서라벌예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변관식은 지난 그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밖으로 나가 풍경을 찾고, 스케치로 담는 사행(스케치를 위한 여행)을 강조하였다. 남강 김원, 출정 유명렬, 윤재 노영준 같은 제자들은 금강산의 만물상 풍경이나 한국의 명산과 농촌풍경 등의 실경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을 통해 소정의 회화계보를 이어갔다.

1954년 돈암동 산11-25의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작은 'ㄷ' 자형 한옥에 화실을 두고 당호는 '돈암산방' 이라 하였다. 붓 한 자루 살 돈도 없으면서 그림으로 술값을 대신할 정도로 술과 풍류를 즐겼다. 돈암동 곽서방네, 미아리고개 넘어 길음정은 친구들과 자주 들리던 술국집이었다.

동소문밖 언덕배기 듬성 듬성보이는 고옥들 사이에 자리 잡은 칠순의 소정 변관식 화백의 남향받이 화실은 그의 작품세계처럼 소박하고 온아했다. 화실이라야 서민풍의 십구간 한옥의 건넌방이지만 화필 오십여 년의 체취가 배어선지 그윽함이 풍긴다.

〈봄을 바라보는 아틀리에-소정화실의 변관식〉 동아일보, 1972.01.11



소정화실에서 변관식

1960년을 전후하여 독창적인 구도와 묵법으로 표현한 '소정양식' 이 완성되었다. 붓에 먹을 엷게 찍어 그림의 윤곽을 만든 후 먹을 칠하는 적묵법積墨法과 먹을 튀기듯이 찍어 선을 파괴하듯 리듬을 주는 파선법破線法 등 자기만의 화풍을 창조하였다. 스승 조석진을 넘어서 자신만의 세계를 이룬 것이다.

소정의 소는 내 외조부면서 나의 은사이신 고 소림 선생의 아호 중에서 '소' 자를 적용했고, 또 '정' 자로 말하면 내 시조의 아호가 '춘정' 이셨으므로 거기서 '정' 자를 인용한 것이 즉 '소정' 이 된 유래다. … 내 호를 가지고 억지로 허장성세 할 양이면, '대' 자를 싫다하고 '소' 자를 골라잡았으니, 겸허하고 온공한 미덕이 그 가운데 꾸려져 있다 할 것이며, 또 '정' 자는 '고산반석高山磐石 기상정정其上亭亭' 이란 옛 글과 같이, 고고한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소정' 이란 내 호가 어찌 아주 의미가 없고 특징도 있지 않다고 하겠는가.

변관식, 〈소정의 변辯〉 동아일보, 1957.04.10

변관식은 말년까지도 단양 8경과 오대산, 설악산 등으로 끊임없이 스케치 여행을 다녔다. 그곳의 지형이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가 되어서야 작품을 구상하여 한 점, 한 점에 혼을 쏟았다. 1974년 마지막 작품전을 위해 정릉골짜기 대성사에 들어가 작품을 그리던 변관식은 그림 속 지팡이를 들고 분주히 걸어가는 노인을 가리키며 "나를 그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쓸쓸히 웃었다. "내 작품은 죽은 뒤에야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야"고 하던 변관식의 말처럼 그의 작품세계는 타계 이후에 더욱 인정받았고, '한국의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토속적인 작품을 그리는 한국산수화 4대가' 로 높이 평가받았다.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47

(2) 수정 박병래 水晶 朴秉來 1903~1974

수십년간 모은 조선시대 도자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우리 문화를 지킨 수집가로, 평생 의술醫術을 펼친 의사로 나눔을 실천한 수정 박병래.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나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1936년 성모병원이 개원하며 초대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은 한국가톨릭교회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도들의 기금을 모아 일본인이 경영하던 무라카미병원을 매입하였고, 박병래의 의견에 따라 '성모병원' 이라 이름 지었다. 박병래는 평생 신앙을 통한 봉사,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다. 사회봉사를 근본정신으로 한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1957년에는 서울 관철동에 자신의 세례명을 딴 성루가병원을 세워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성루가병원은 폐결핵 전문병원으로 개원 당시 종합내과전문병원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수정 박병래

경성대학부속병원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병원에서 일할 때 사기그릇에 감탄하는 일본인 교수를 보고 도자기에 관심을 가진 이후 위창 오세창, 간송 전형필, 도상봉 등과 교류하며 안목을 키우고 백자를 수집하였다. 공군의무감醫務監으로 지방에 있을 때도 틈틈이 골동품 가게를 다니며 백자를 모았다. 수집에 취미를 붙인 1930년대에는 병원 일을 보는 한편, 오후가 되면 서울시내에 있던 골동상 열두 곳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일과였다.

돈암동 자택(4가 87)은 목가구와 수집한 백자, 수석이 알맞은 자리에 놓인 한옥이었다. 아내인 최구 여사가 키우는 한란, 세심란 같은 여러 종류의 난초가 어울려 운치를 자아냈다.



돈암동 집

한옥 기와집 고가인 우리집은 신식집처럼 방이 넓지 못하나 안정된 고전미는 있다. 내게는 서재도 되고 많잖은 부인네 손님에게 방석을 권하며 앉히게 되는 이 건넌방은 별로 꾸민 것이라곤 없지만 몇가지 가구의 배치로 조용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책을 얹어두는 사방탁자, 그 옆에 조선시대의 책상을 배치하여 그대로 책상으로 쓴다. 묵은 상에 수집한 돌이나 조그마한 화분을 바꾸어 가며 얹어두면 영창의 창살과 어울려 마음에 드는 방이 된다.

최구, 〈겨울철 장식〉 동아일보, 1969.01.23

"내 나이 지금 70밖에 안되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와서 90년 살고 갑니다. 의사로서 50년 봉사하고 이조자기를 아끼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아끼며 보전한 소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하기 전 도록을 발간하고, 자신의 수집 인생을 회고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1974년 3월 발간된 『도자단상陶瓷短想』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시기의 골동상과 수집가들 사이에 벌어진 흥미로운 일화들을 통해 문화재 수집을 향한 각별한 마음과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수필집이다.

박병래는 수십 년 간 쌓은 안목으로 백자와 청화백자로 된 문방용구나 소품 중 뛰어난 작품을 선별하고, 체계를 갖추어 수집하였다. 도자기를 수집하며 시대 배경과 양식, 기술, 재료까지 세심히 살피고 공부하였다. 고려청자에 비해 조선시대 백자에 관심이 많지 않을 때부터 백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꾸준히 모은 그의 소장품은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관점이 분명히 잡혀 있다' 는 평을 받는 정품精品이었다.

의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종교의 뜻에 따라 베풀고, 문화재를 수집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다고 회고하듯이 호사가의 취미가 아닌 수집가로서 삶을 산 박병래는 1974년 삼백 육십 점이 넘는 소장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박병래 기증 기념 특별전시를 준비하며 집으로 찾아온 국립중앙박물관 최순우 학예실장에게 "골동에서 얻는 것이 있다면 우리 것을 알게 된 것" 이라며 진심으로 문화를 아낀 마음을 내보였다. 세상을 뜨기 전 '문화재는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모두의 것' 이라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돈암동수정 2012.12.285:14PM 페이지51

1974년 72세 생일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조자기특별전'을 열어 투각운룡문연적, 매죽문필통, 청화백자구형연적, 청화백자추초문팔각병 등 기증품 중 242점을 선보였다. 안타깝게도 전시 개막을 열흘 남짓 앞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과 뜻깊은 실천은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또 다른 유산이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박병래 기증실

(3) 횡보 염상섭 橫步 廉尙燮 1897~1963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성장시킨 소설가 횡보 염상섭은 1897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민족의식을 가져 관립 사범부속보통학교를 다니다 조선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손병희 선생이 운영하던 보성학교로 전학하였다. 보성 소학교 · 중학교를 거쳐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1918년 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 입학했다. 유학 간 다음해 3.1운동이 일어나자 '재 대판 한국노동자일동 대표 염상섭在大阪韓國勞動者一同代表廉尙燮'이라는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6]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3.1운동 후 유학생 감시가 심해졌고, 조선 사람이 많은 오사카[大阪]에서 거사를 벌이려던 것이다. 그러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 못한 채 검거되었고 3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일본인 재판장이 염상섭에게 법률을 전공하라고 권할 정도로 고국의 참혹한 현실을 조리 있고 당당하게 폭로하였다.



횡보 염상섭

1920년 귀국 후 변영로, 오상순, 김억 등과 만든《폐허》의 동인同人으로 신문예운동을 전개하였다. 문단에 등단한 것은 1921년「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8월부터 10월까지《개벽》에 연재된 이 소설은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문학으로 평가받는다.

소설이 발표된 때는 3.1운동으로 점화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일제의 통치 속에 있는 어둡고 답답한 시기였다. 염상섭은 사회현실을 글로써 낱낱이 알리고자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신랄한 묘사를 통해 항거하였다. 1922년 식민지현실과 반일감정을 담은 작품「만세전」을 발표한 이후 사실주의적 수법을 이어갔고, 1931년 집필한「삼대」는 조선일보에 21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1930년대 시대상과 식민지 시절 갈등하는 지식인들의 삶을 서울 중산층 가족의 인물을 통해 보인 이 소설은 염상섭의 대표작이 되었다.

노심산盧心汕이든지 이청전李靑田이든지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그때 여름철이라 일제 부채를 가졌었는데 게[蟹]를 그리고 또 한 친구가 황행천하橫行天下라고 제題를 한일이 있었다. 논설반의 주朱모군이 내 호를 짓겠다고 발단을 하여 편집국에 달아놓은 철판에 횡보라고 커다랗게 써놓은 일이 있었으나 그 후부터 자연 횡보라고 부르면 대답 아니하는 수가 없었다. 그 시절 한참 다니던 다방골 민순자閔淳子집 술맛에 빠져 다닐 때라 지자之字 걸음만 걸었으니 횡보가 똑 알맞는지 모르겠다. 혹은 나갈 길은 따로 있었는데 외도로 문학을 하였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염상섭, 「아호雅號와 인생」 동아일보, 1963.03.14

당시 문인이나 화가들은 신문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고, 기자나 편집국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연재소설은 신문의 판매부수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는데, 소설을 누가 쓰느냐도 중요했지만 소설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삽화를 누가 그리느냐도 관심사였다. 한국화가로 알려진 심산 노수현이나 청전 이상범도 연재소설의 삽화를 그렸다. 연재 작가와 삽화가, 신문사 직원들은 날마다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 황토마루에 있던 목천집은 염상섭, 백화, 방인근, 김억, 현진건 등 문인과 이상범, 노수현, 이용우, 최우석 같은 화가들이 자주 드나들던 선술집이었다.[7]



염상섭 가족사진

1937년 만주 신경新京에서 발행 된 조선족 유일의 한글신문이었던《만선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초빙되면서 10여 년 간을 만주와 신경에서 보낸 뒤, 1946년 6월 서울에 돌아와 돈암동 295-3호에 자리를 잡았다. 38선을 넘어 귀국할 때 살림살이를 다 정리한 채 피난민처럼 내려와 변변한 옷가지도 없이 빈 손이나 마찬가지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가구도 없어 신문사에서 선물로 보내온 고구마 한 궤짝을 아껴먹고 난 뒤 그 궤짝을 밥상으로, 책상으로 쓸 정도였다.[8] 그러나 서울에 돌아온 것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듯 전세집 문 밖에 '廉尙燮' 이라는 문패를 걸어 두었다.

1946년, 경향신문 주간을 맡고 있던 시인 정지용은 돈암동 이웃에 살고 있던 소설가 김동리를 찾았다. 신문사 편집국장 경력이 있는 염상섭이 귀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염상섭과 교류가 있던 김동리에게 부탁을 하러 간 것이다. 김동리와 정지용의 주선으로 염상섭은 경향신문 초대 편집국장이 되었고, 후에 정지용은 김동리에게 쇠고기 두 근으로 감사 표시를 하였다.

돈암동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전쟁이 터졌다. 9.28 서울 수복이 되자 해군에 입대하였고, 전쟁 중에도 집필을 계속하여 조선일보에 1952년 7월부터 1953년 2월까지 「취우驟雨」라는 소설을 연재하였다. 제대 후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라벌예술대학의 초대학장이 된다. 그러나 이름뿐인 학장이었고, 집필에 치중하였다. 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제야除夜」, 「무화과無花果」, 「모란꽃 필 때」, 「미망인」 등 장편 26편, 단 · 중편 150여 편, 문학평론 100여 편 등 470여 편의 글을 남겼다.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면서, 전통을 계승하고 또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경지를 확립한 작가로 평가 받은 염상섭. 서울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서울에서 지냈지만 한국전쟁과 잦은 이사로 「삼대」를 쓴 향화동 한옥도, 서울 어느 곳에서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지 않다. 충정로, 돈암동, 상도동, 삼양동, 성북동 등지를 옮겨 다닌 그는 1963년 3월 2년 간 살던 성북동 145-52번지에서 직장암으로 숨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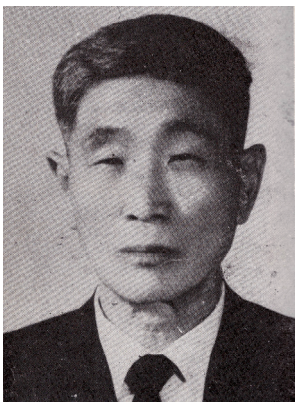
(4) 여심 주요섭 餘心 朱耀燮 1902~1972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작가이자 영문학자인 여심 주요섭은 190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최초의 근대시로 평가되는 「불놀이」(1919)를 쓴 작가 송아 주요한의 동생이다. 평양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부친이 도쿄 한인 연합교회 목사로 부임하며 주요섭 형제도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도쿄 아오마학원[青山學院] 중학부에 편입한 이듬해 3.1운동이 일어났다. 형 주요한은 곧장 상해로 가 춘원 이광수와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서 활동하는 한편 도산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 원동遠東 위원부에 들어갔다. 민족의식과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열일곱 살 주요섭은 평양으로 돌아와 독립을 호소하는 신문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이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다. 그 시기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여 자신의 앨범 앞 장에 안창호 선생의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였다.

주요섭은 1920년 매일신보에 단편 「임의 떠난 어린 벗」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9] 중국 상해 후장[滬江]대학을 다니는 동안 상해를 배경으로 하층계급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인력거꾼」, 「살인」 등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한편 동아일보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을 번역한 「보도탐험기」를 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험과 탐험 소설의 태동을 이끈 선구적인 번역으로 평가되었다.

1928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와 《신동아》 주간을 맡았다. 사무실은 광화문 네거리에 있던 동아일보사 2층이었다. 일제강점기의 검열과 탄압이 심할 때라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걸려 내지 못하는 기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주간이 하는 일 중 하나였다. 온통 붉은 잉크로 덮인 원고를 받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공백을 채우기 위해 주요섭이라는 이름 외에 아호인 여심이나 어머니의 성姓에 이름을 지어 붙인 양두식梁斗植, 용악산인龍岳山人, 멍텅구리 같은 필명으로 원고를 쓰거나 외국 잡지 내용을 번역해서 지면을 채웠다.

1930년대 문인들은 일제의 사전 검열 탓에 쓰고 싶은 글을 쓰지 못하고, 써낸 글도 군데군데 지워지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오히려 삭제된 표시를 보며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여 응원하는 독자 덕분에 힘을 얻기도 하였다. '글 쓰는 것도 하나의 멋이나 우국지사와 같은 기분이어서 서로 자주 만났다' 는 주요섭의 회고처럼 당시 문단활동을 하던 문인들은 시대의식을 서로 공감하며 생기는 끈끈한 유대감을 나눴다.[10]



여심 주요섭

신동아에는 창간호부터 관여했었다. 그때 미국서 갓 돌아 왔을 때였는데 송 사장(송진우)의 부탁으로 일하게 되었었다. 설의식 선생 주관 아래 창간호의 교정을 보고 있을 때였다. 다음호부터는 설 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맡아보았는데 원고 부족, 총독부 검열 등 어려운 일이 많았다. 실명 외에 용악산인龍岳山人, 양두식梁斗植, 멍텅구리 등 가명 필명으로 마구 쓸 밖에 없었는데 한번은 양두식 선생이 어떤 분이냐고 문의가 와서 모두 웃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들이다. 원고를 모아놓고도 고생이었다. 원고 검열이어서 손을 나누어 복사하고 한편으로 조판, 한편으론 검열을 진행시켰다. 신문사에서 하는 거라 보아 준다는 것이 자그만치 한 달이나 걸리곤 했다.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같았다. 총독부의 눈을 속이려고 투고의 자구를 요리조리 수정하느라 모두 땀을 빼기도하고. 자유천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여서 더했겠지만 부자유스럽기가 감옥 같았다.

주요섭, 〈신동아의 초창기〉 동아일보 1964.08.22



「사랑 손님과 어머니」 책표지

1935년에는《조광朝光》창간호에「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발표하여 작가로서 명성을 높였다. 주요섭과 각별한 사이로 지내던 소설가 피천득은 후에 여섯 살 옥희와 어머니의 실제 모델이 본인과 어머니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에 이 소설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1961)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다.

제가 형을 처음 만난 것은 열일곱살 났던 해, 내가 상해로 달아났을 때입니다. …형은 미국에서 귀국하여 신동아를 편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하고 방을 얻어 같이 살았습니다. 겨울 아침에 형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나는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운 아침 물을 길러가는 것이 힘이 든다고 날더러 불을 지피라고 그랬습니다. 이무렵 노산, 청전 같은 분이 늘 놀러 왔습니다. 당신이 가정을 갖게 되고 내가 상해로 다시 가게 될 때까지 몇해간을 이 하숙 저 하숙으로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당신의 잘 알려진 작품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의 어느 부분은 나와 우리 엄마의 에피소드였습니다. 형이 상해 학생시절에 쓴 '개밥', '인력거꾼' 같은 작품은 당신의 인도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형은 정에 치우친 작가입니다.

피천득, 〈주요섭의 문학과 생애〉 동아일보, 1972.11.16

작가와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지하독립신문을 발간하던 주요섭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1935년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 푸런[輔仁]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과 짧은 결혼생활 뒤로 혼자 지내던 그는 북경에서 지내는 동안 동아일보에서 함께 근무하던 독립운동가 김조길 선생의 딸 김자혜와 결혼식을 올렸다.

1937년 일제가 지식인 집단을 포섭할 목적으로 단행한 수양동우회사건[11] 이후 친일노선을 걸은 형 주요한과 달리 주요섭은 일본에 항거하는 지식인으로서 지조를 지켰다. 동아일보에 중편 「의학박사」를 연재하며 기회주의에 빠진 지식인들을 비판하였다. 상해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북경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한 그는 1943년에는 일본의 대륙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추방되어 귀국하였다.

귀국 후 주요섭의 가족은 돈암동 254-1번지에 자리 잡았다. 부인의 손길이 닿은 2백분 가량의 화초들이 올망졸망 작은 마당을 메웠다. 아내가 심은 꽃에 물을 주며 아이들을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1953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길」에서 주인공 최응석의 손자 정헌의 집을 돈암동으로 설정하여 한국전쟁 전후의 돈암동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주요섭은 대표작 「사랑 손님과 어머니」로만 널리 알려졌지만, 소설 「봉천역식당」, 「해방 일주년」, 「열 줌의 흙」, 영문소설 「Kim Yu-shin」, 동화 「웅철이의 모험」, 「구멍뚫린 고무신」, 번역서 『안데르센동화집』, 『처칠의 제2차대전회고록』 등 많은 저작물을 남겼다.
뚜렷한 역사인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집필과 번역활동에 힘써 외국에 우리 문학을 알린 주요섭은 1972년 연희동 집에서 72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5) 아인 김내성 雅人 金來成 1909~1957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이자, 대중소설 작가로 이름을 남긴 김내성은 1909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평양공립고등학교에 다니며 셰익스피어,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외국 문학과 탐정소설을 읽으며 문학의 꿈을 키웠다. 1935년 일본 유학 중에 일본 탐정소설 전문지에 투고한 「타원형의 거울」과 「탐정소설가의 살인」이 당선되며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탐정소설 「가상범인」은 우리나라 문단에 처음 선보인 추리소설로, 치밀하고 서사적인 구성으로 대중에게 열렬하게 환영받는다. 첫 장편 「백가면」은 다음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연이어 「마인魔人」을 연재한다.

김내성은 추리소설 집필에 그치지 않고 외국 탐정소설 번안, 라디오 방송소설과 대중소설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다. 1946년 최초의 어린이





「백가면」,「똘똘이의 모험 」 책표지

연속 방송극으로 한국중앙방송에서 방송된 「똘똘이의 모험」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전에도 라디오 연속극 작업에 여러 편 참여하였지만, 같은 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번안한 방송극 《진주탑》이 인기를 끌고 방송 후 펴낸 단행본까지 베스트셀러가 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작품은 라디오 방송극 외에도 영화와 드라마로 각색되어 대중을 만났다. 「마인」, 「청춘극장」, 「쌍무지개 뜨는 언덕」 같은 작품은 몇 번씩이나 다시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끈 원작이다. 특히 월간 《소년》에 연재된 「쌍무지개 뜨는 언덕」으로 어린이들까지 독자가 되었다. 소설가 박범신, 시인 이근배, 연극인 손숙 등 당시 청소년기를 보낸 많은 사람들이 김내성의 소설에 파묻혀 보냈다는 회고를 할 만큼 당시 김내성은 폭넓은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었다.



김내성의 가족사진

1936년 가회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뒤 명륜동을 거쳐 『태풍』(1942)의 인세로 성북동에 집을 마련했다. 1948년에는 성북동보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근처 돈암동으로 집을 옮기고 안정기에 접어들며 잇달아 작품을 발표한다. 1949년부터 한국일보에 연재한 『청춘극장』(총5권)은 피난 중에도 각 권이 1만권 이상 팔려 195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소설로 꼽힌다. 흥미진진하고 치밀한 구성이 바탕이 된 이 소설이 전쟁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대상황과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내성은 『청춘극장』 덕분에 부산 피난 시절에 완간 기념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열고, 동대신동에 작은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평양 출신 아내와 사이에 2남 2녀를 둔 김내성은 애처가로 누가보기에도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1950년대 인기 잡지였던《희망》에서는 '작품 발표 수', '종교' 등 몇 개 항목으로 문인들의 점수를 매겼는데, 김내성은 애처가로 100점을 받았다. 이에 응답하듯 '나의 아내를 말함'(1952)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행복한 모습을 남겼다.

"내가 애처가로서 우등생이래요, 우등생!"
그러면서 기사의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망측해라!"
분명히 아내는 세고에 쪼든 창백한 얼굴에 일 점 홍조를 띠었다. 옆에 앉았던 여중 2년의 문혜가
"아이, 우스워요! 애처가! 아버지가 애처가!"
손뼉을 치고 배를 안으며 웃어 댔다. 국민학교 4년생인 도혜가 눈이 둥그레지며
"언니, 애처가가 뭐야?"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이야, 어머니를.....어머니를 굉장히....."
"굉장히 뭘 어땠니?"
"굉장히, 굉장히 사랑한대요! 아이, 우스워!"
"그래-? 아이, 참말 우습다! 아이, 우스워! 아이, 우스워!"
미경력의 장남 유헌과 세 살 먹은 차남 세헌이까지 뭣도 모르고 조갑지 같은 손으로 연방 손뼉을 치며 덩달아 우습다고 좁은 단칸방을 오쭐오쭐 뛰었다.
꽃이 피었다. 《희망》이 우리 가정에 단락한 꽃 웃음을 피워 주었다.

김내성 「나의 아내를 말함-무제기無題記」, 1952



아인 김내성

김내성은 우리 문학계에 새로운 추리소설 장르를 들여오고, 전후 시대의 상처와 생생한 사회상을 대중연재소설로 그려내 큰 호응을 얻었다.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으려 한밤중에 글을 쓰고, 청교도적인 생활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글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단의 어떤 계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으려는 활동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현대 장편소설의 완결성은 테마, 플롯, 인물의 성격, 문장 형식, 분위기 따위의 요소에 더해 시대성과 생활방식, 현대인의 사고와 감각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고 자신의 창작태도를 밝힌 김내성은 시대적 현실성을 살린 작품으로 독자에게 평가받고자 하였다.

1954년에만 세 편의 작품을 동시 연재하며 단행본 발간, 수필 발표를 할 정도로 전성기를 한껏 누리던 그는 건강악화로 1957년 연재하던 『실낙원의 별』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돈암동 69-10 자택에서 세상을 뜬다.

사후 그를 기리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내성문학상' (1958)과 '김내성추리문학상' (1990)이 제정되었고, 아동문학과 대표작들이 재출간 되었다. 최근까지도 영화와 드라마, 단막극으로 변주된 김내성의 작품은 시대를 넘은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6) 난계 오영수 蘭溪 吳永壽 1909~1979

소설가 오영수는 소박하다 못해 촌스럽기까지 한 인물들의 때 묻지 않은 삶을 통해 향토적인 서정을 그린 작가이다. 1909년 경상남도 울산군의 작은 농촌마을인 언양에서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오영수는 어린 시절 그림도 잘 그렸고 음악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12] 그러나 부친이 "화쟁이가 되려면 부자의 의를 끊겠다!"고 하여 소질을 살리지 못했고, "풍각쟁이가 되려거든 오늘부터 이 집을 나가라!"고 하여 음악도 배울 수 없었다. 가난함과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억압 속에서 오직 독서만이 젊은 낭만을 달래 주었다. 책읽기를 좋아하던 소년은 시를 쓰기 시작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동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일본을 오가며 공부를 한 오영수는 귀국 후 1943년 부산 동래 기장의 한 어촌 마을 면사무소에서 임시서기로 일하였다.

술자신 우라버지 술자신 우라버지
거짓말쟁이 심술쟁이지
장가시면 딱총하나 왼집안 사람에게
사준다더니 지분을 떨고
나무판돈 가지고 대업시 어머니만
술만자시지 복가대지오

오영수, 〈술 자신 우리 아버지〉조선일보, 1929.11.10

이때 기장에서 요양 중이던 소설가 김동리의 형 한학자 범부 김정설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형을 만나기 위해 온 김동리와 알게 되며 그의 추천으로 1949년 단편소설 「남이와 엿장수」(후에 「고무신」으로 개작)를 《신천지》에 발표하였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단편 「머루」로 정식 등단을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주가 많아 일본 유학시절에도 실내장식사 견습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오영수는 해방 이후 부산의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게 된다. 1946년에는 장남 오윤이 태어났는데 미술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미술에 관심을 가졌고 후에 민중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판화가가 되었다. 부산에서 지내며 한국전쟁 때 피난을 온 문인들이 잘 곳이 없어 고생할 때 모른 척 하지 않고 잘 곳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오영수「머루」출판기념회

1954년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의 사장인 고향선배 김기오가《현대문학》을 창간하여 오영수를 초대편집장으로 초빙하였다.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단의 분위기를 익히던 때라 편집장 제의에 응하고 부산 생활을 정리하였다.

서울로 올라와 돈암동 250번지, 신흥사 입구에 있는 집을 얻었다. 멀지 않은 곳에 배밭이 있어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돈암동에 정착한 뒤 스스로 평소와 달리 많은 글을 썼다고 회고할 만큼「여우」,「후조候鳥」,「명암」등 단편소설 여러 편을 발표하였고, 1957년에는 부산 기장에서 보낸 시기의 삶을 바탕으로 대표작「갯마을」을 썼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갯마을」에서 해순의 삶과 애환을 통해 생명의 순환과 회귀라는 자연의 순리를 담고자 하였다.

도시생활에 탈이 났던 것일까. 오영수는 이 무렵부터 신경성 위궤양을 앓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많은 연재 제의가 들어왔지만 자신의 역량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편소설 의뢰를 거절하고 단편을 고집하였다. "본의 아닌 오해나 욕이나 고독도 나에 대한 내 자신의 불성실보다는 견딜 수 있다"라는 창작관을 가지고 자신의 문체를 지킨 것이다.

1963년에 도봉구 우이동 골짜기로 이사하였으나 건강 때문에 13년 동안 애정을 쏟았던 《현대문학》을 퇴사하고 이듬해 위궤양 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인지 서울 생활은 낭만적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삭막하고 불행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서울서 삽십년, 옆눈 한번 팔지 못하였다. 자신을 위해 택시를 타지 않았고, 양담배 한 갑 산 적이 없었다. 친구들과 점심 한 끼를 떳떳이 사보지 못하였다. 주간은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딴 직장으로 가버리면 종일 사무실을 지켜야 했다. 실례지만 문단 거지들과 지방 문인들의 시중까지 그 알량한 월급으로 감당을 못해 원고료를 쬐끔 협잡을 해서 문인 거지들과 지방문인들의 찻값에 보태기 위해 아무도 몰래 서랍에 넣어두고, 반품을 표지만 뜯어버리고 휴지로 팔아 충당하기도 하였다.

오영수, 「속, 낙향산고」

도시문명의 폐해로 인간의 삶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작가의 체험과 깨달음, 자연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글에 반영되었다. 자연 속에서 전쟁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단편소설 「메아리」(1959)의 한 부분처럼 자연은 오영수에게 고향같은 곳이었다.

동욱은 산이 좋았다.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산은 깊을수록 좋고, 나무가 많을수록 좋다. 소나무보다는 잡목이 많을수록 더 좋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 가을이 더 좋고 겨울도 싫지 않다.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든든하고 미덥다. 산골에 돌아온 것이 마치 고향에라도 온 것처럼 마음이 흐뭇하고 너그럽다.

오영수, 『메아리』



오영수

1972년 12월 두 번째 수술을 받으며 쓴 「입원기」에는 "1972년으로 해서 내 생명은 일단 끝나버리고 딴 피의 작용으로 살아 있는 만큼 덤으로 얻은 목숨, 즉, 여백의 생명"이라고 심정을 고백하였다. 이후 영수永壽를 영수映受로, 호를 월주月洲에서 난계蘭溪로 고쳤다. 1977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로 낙향한다. 대숲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시골집을 하나 구해서 구들을 고치고 대를 쪼개어 사립문을 달았다. 그리고 그 집을 침죽제枕竹齊이라 하였다. 쇠약해진 건강에도 1978년 제7창작집 『잃어버린 도원』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다음해 간암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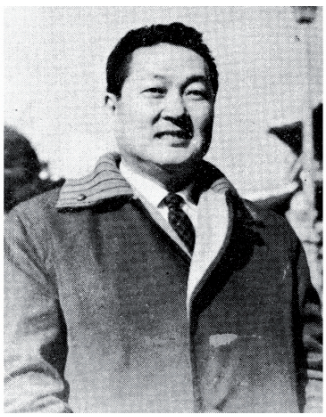
도시의 혼탁한 세태를 깨끗하게 할 수 길은 오로지 때 묻지 않은 인간의 아름다운 정이라고 한 오영수. 자연과 인간, 소박함을 아낀 마음은 그가 남긴 단편소설 150여 편으로 남아있다.

(7) 서운 박계주 曙雲 朴啓周 1913~1966

최장기 베스트셀러 「순애보」의 작가 박계주는 1913년 간도 용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시절 읽은 문학작품은 이국땅에서 겪은 설움과 한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작가의 삶을 그린 박계주는 1929년 간도일보 신춘문예에 「적빈」이 입선, 「잡초」, 「두만강」 등 50~60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2년에는 종교잡지 《예수》를 창간하여 종교논문을 30여 편 발표하였다. 1936년에는 전영택 목사의 주선으로 《새사람》 편집도 맡았는데, 이때 춘원 이광수를 만나 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박계주의 대표작 「순애보」, 「진리의 밤」, 「구원의 정화」 등에는 기독교 정신이 반영되었다.

1938년 매일신보의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당선된 「순애보」는 박계주를 인기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 작품이다. 평양에 머무르고 있던 중 매일



서운 박계주

신보의 현상모집 기일이 두 달 연기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응모하기로 마음을 정한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던 시절 서울 내자동에 오동나무집으로 불리던 하숙집에 머물며 밤낮으로 글을 쓴다. 당선금은 당시로서는 큰 액수인 천 원이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천 5백 매나 되는 원고를 완성하였다. 당선작은 박진朴進이라는 필명으로 1939년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이상주의와 기독교적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사랑 이야기는 청소년층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어 단행본 초판 1천부는 보름 만에 매진되었다. 당시 경영난에 처해있던 매일신보가 「순애보」 덕분에 구독률이 두 배 이상 높아져 기사회생 할 정도였다. 이후에도 출판사를 달리해 70여 판 이상을 찍으며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순애보〉 영화포스터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박진朴進', '서운曙雲' 이라는 필명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순애보〉, 〈죄 없는 죄인〉, 〈진리의 밤〉, 〈별아 내 가슴에〉 등은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았다.

1940년대에는 삼청동에서 돈암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돈암동 산72-1번지(현재 동선동4가 352)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미아리 고개를 넘어 납북되었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여 돌아왔지만 돈암동 집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이후 돈암동 98-1번지에 세를 들어 다시 살림을 꾸렸다. 당시 추리소설로 인기를 얻은 김내성이 돈암동 전차종점 근처에, 연애소설로 명성을 떨친 방인근이 성북동에 살고 있어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이 세 사람의 작품은 많은 영화 시나리오의 원작이 되어 한국 대중영화의 수원지라 불리기도 했다. 김내성과 친분으로 1957년 그가 타계한 이후 묘비 건립 기금마련에 힘쓰고, 내성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1955년 발족한 '한국자유문학자협회' 의 사무국장과 '국제PEN클럽' 초기 회원으로 활동하며 김광섭, 모윤숙, 안수길, 조병화 등과 교류하였다.

1958년 정릉동 685-123호에 집을 얻었다. '부흥주택, 국민주택' 이라고 불린 시멘트로 지은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서며 집을 분양받은 것이다. 오래 머물던 돈암동에서도 가까운 곳이라 낯설지 않고, 친구들과 지내기도 좋았다. 여느 때처럼 모임에서 약주를 마시고 돌아와 잠을 청한 날,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고 만다. 1962년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장편소설 「여수」가 필화사건에 휩싸여 집필이 중단되며 생활이 어려워진 때였다. 치료비 때문에 정릉 집마저 팔아버리고 돈암동 미아리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3년 간 투병생활을 하였다. 마지막 1년을 보낸 집은 미아리고개 막바지, 미아리고개 버스정류소에서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한참 올라간 곳이었다.

오랜 병 치료에 시달린 끝에 정릉 집마저 팔아버리고 미아리산꼭대기 게딱지같은 집으로 옮겨 앉으신 박선생, 순애보 이래 문단의 산역사요, 증인이었던 박선생, 그 독설과 재담으로 남의 가슴을 서늘하게도 하고 훈훈하게도 해 주던 박선생, 건장한 체구에 아기 같이 욕심 없던 박선생, 그저 마냥 무엇인가 그리워 친구들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던 죄 없는 박선생, 알아 누우신 3년 동안 더욱 그리움에 지치고 야속한 인정에 지쳐 영 눈 감어 버리신 박선생, 오래잖아 라일락도 필 이 따사로운 봄날에 박선생은 어이 그리 훌훌히 떠나셨나이까.

전숙희, 〈별은 이제 어디에 박계주씨의 영전에 붙여〉경향신문, 1966.04.11

박계주는 축대 위로 올라선 돈암동 13, 9통 6반 자그마한 집에서 1966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소설 외에도 시, 수필, 평론 등 여러 분야의 글을 남겼고, 현대 대중문학을 개척했다는 평가 받은 그의 장례는 문인장文人葬으로 세종로 예총회관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8) 김동리 金東里 1913~1995

해방 후 1세대 작가 김동리는 1913년 경주에서 태어났다. 김동리는 어머니 나이 마흔두 살에 낳은 막내로 항렬자 봉鳳을 이어 본명은 창봉昌鳳(호적에는 창귀昌貴)이었다. 4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가세가 기울자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에 있던 큰형의 집에 머물게 된다. 큰형 범부 김정설은 한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열여섯살 아래인 동생에게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범부는 김동리가 문학의 길을 가는데 영향을 끼쳤고, 동생에게 동리東里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온종일 형의 서재에서 철학, 세계문학, 동양고전 등의 책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1934년 시 「백로」가 조선일보에 입선, 이듬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화랑의 후예」가 당선되며 등단하였다. 이후 범부가 머물던 경남 사천 다솔사와 합천 해인사에 기거하며 글쓰기에 매



김동리

진하였다. 「등신불」은 다솔사를 소재로 쓴 소설인데, 신라시대 고찰인 다솔사는 당시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 비밀결사인 '만당卍黨'의 지방거점이었다. 독립운동자금 조달기구 백산상회의 연락소로 만해 한용운, 범산 김법린, 효당 최범술 등이 오갔고, 김동리는 이들을 통해 민족의식을 다졌다.

1942년 일본이 강요한 '문인보국회'의 참여를 거절하자 김동리가 한글을 가르치던 다솔사 부설 광명학원이 폐쇄되었다. 이어 큰형 범부가 구속되고 가택수색과 예비검속의 수난을 당하였다. 「바위」, 「무녀도」, 「황토기」, 「사반의 십자가」, 「등신불」 등의 작품으로 입지를 다지며 명성이 높아지던 때였으나, 통한과 분노로 해방이 될 때까지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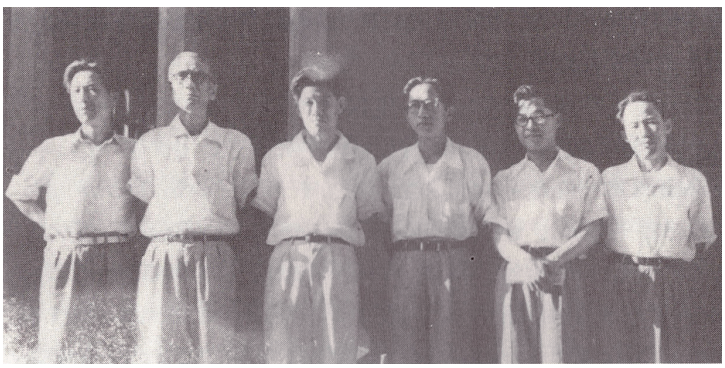
1945년 2월 하순 서울로 올라온 김동리는 미당 서정주의 집에서 잠시 지내다 얼마 후 돈암동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해 가족들은 큰 가방 하나뿐인 단출한 이삿짐을 가지고 상경하였다.
해방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본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간신히 조국으로 돌아 왔으나 거처할 곳도 생계를 마련할 길도 없었다.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여 토끼굴 같은 방공호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돈암동 사람들의 모습이 소설 「혈거부족」(1947) 속에 담겼다.

삼선교와 돈암교 사이에 놓인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 그러나 언덕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산줄기의 끝이었다. 이 산줄기를 타고, 허연 신작로가 널따랗게 커브를 그리며 돌아간 산지 일대의 구멍들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 "사철 여름 같았으면……."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이 길고 지루한 겨울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김동리, 「혈거부족」

서울에 올라온 뒤부터 뜻이 맞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해방 후 문단 1세대 작가로서 민족문학의 정립과 발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김동리는 "민족문학은 인간주의 문학이요, 본격문학이요, 순수문학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도 인간주의 민족문학을 성취해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라 주장하였다. 1946년 조지훈, 조연현, 황순원, 최인욱, 박두진, 박목월, 서정주, 김달진 등과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듬해인 47년 정월 하순이던가 2월 초순이던가 나는 솔선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돈암동 경동고등학교 밑에 있는 조그만 한옥이었다. 나는 이사를 온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최초로 다시 만난 사람이 서정주 조연현 씨였다. 뒤이어 최태응 조지훈 박두진 김송 김윤성 씨들을 만났고 잇달아 곽종원 김달진 박종화 이헌주 양주동 김광섭 김진섭 정지용 이하윤 염상섭 이원조 설정식 박영준 이무영 김동석 제씨들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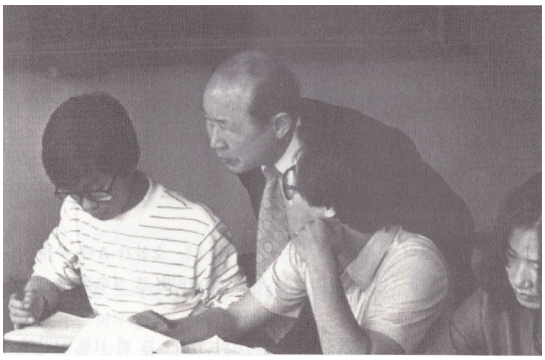
작가들과, 맨 오른쪽이 김동리

김동리는 문학 동네 촌장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길러냈고, 문단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56년 4월 미아리고개 너머 산을 깎아 만든 자리에 서라벌예술대학의 3층짜리 교사가 지어졌다. 1953년 용산구 후암동에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대학이 새로 건물을 짓고 돈암동 산3-1번지로 이사를 온 것이다. '문인 사관학교' 라고 불린 서라벌예대 문예창작학과에는 김동리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시인 서정주, 안수길, 박목월, 곽종원, 이광래, 정태용, 김구용, 양원달 등이 교수로 있었다. 김동리는 문학에 소질이 있는 전국 고등학생들을 찾아 문학의 꿈을 키우게 하였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에서 공부하며 문단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도 김동리를 통해 등단하였다. 돈암동 210번지 13호 집으로 박경리가 들고 온 소설을 읽고 미발표 작품을 현대문학에 추천한 것이다.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여학교의 선배언니가 아들 다섯을 데리고 살던 돈암동의 선생님 본가에서였다. 가을이었던지 여름이었던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장독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 마루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선생님은 몸집이 작달막하고 얼굴은 둥그스름했으며 책을 통해 상상해온 문사하고는 거리가 먼 인상이었다.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추억」



서라벌예술대학에서 수업 중인 김동리

김동리의 문학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 신과 인간, 우주의 근원 의식이 담겨있다. 신라 천년의 전설이 어려 있는 경주의 산하에서 나고 자란 기억은 작품의 뿌리이자 바탕이 되었다. 어린시절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에 반발한 어머니가 집에서 모시던 신주단지를 내다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겪은 종교적 갈등과 가정불화, 소꿉친구 선이와 사촌 남순 누나의 죽음은 주검과 폐허의 이미지로 작가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인 「무녀도」는 경주의 한 무당 가족이 겪는 무속과 기독교의 갈등, 전통의 해체와 인간의 보편성을 다룬 작품이다.

고유의 토속성과 인간중심의 민족문학론을 제창하며 우리의 전통적 소재를 인류의 보편적 차원으로 그려낸 작가 김동리는 뇌졸중으로 1995년 숨을 거두었다. 사후 「무녀도」를 장편으로 개작한 「을화」가 노벨문학상 본선에 진출하여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9) 신동엽 申東曄 1930~1969

'민족시인'으로 불리는 신동엽은 1930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우등상을 타고,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머리가 좋았다. 1948년 전주 사범학교를 나온 뒤 상경하여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학창시절 금강을 바라보며 시를 생각한 소년은 20여 년 뒤 역사와 민족의식을 작품에 담아낸 시인이 되었다.

언젠가 부우연 호밀이 팰 무렵 나는 사범학교 교복 교모로 금강 줄기 거슬러 올라가는 조그만 발동선 갑판 위에 있은 적이 있었다. 그때 배 옆을 지나가는 넓은 벌판과 먼 산들을 바라보며 '시'와 '사랑'과 '혁명'을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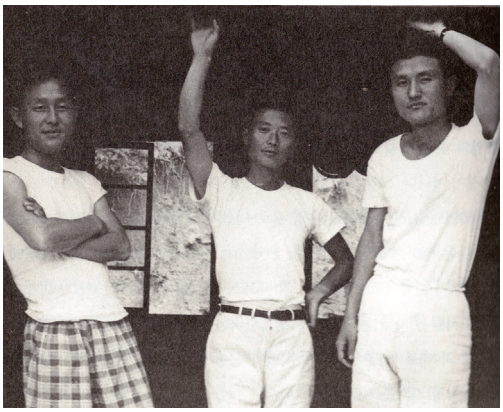
신동엽, 〈서둘고 싶지않다〉 동아일보, 1962.06.05



신동엽

1953년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향 선배를 도와 돈암동에 머물며 서점 일을 하였다. 돈암동 네거리에 있던 서점에서 허름한 군복 잠바를 걸치고 일하던 청년은 변변한 직장도 돈도 없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났다. 돈암동에 살며 서점을 오갔던 이화여고 3학년생 인병선은 그 눈빛이 좋아 신동엽과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1957년 혼인을 하게 된다. 서로 '석림', '추경'으로 불렀는데, '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시는 모두 아내를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

결혼 후 고향 부여로 내려간 이듬해 보령군 주산농업고등학교 교사가 된다. 부여 읍내에 이화양장점을 열고 생계를 책임지던 부인의 짐을 덜 수 있어 반가운 일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곧 그만두게 된다. 아픈 몸으로 다시 부여로 돌아가 갓 태어난 아기와 아내를 돈암동 처가로 올려 보내고, 요양을 하며 독서와 글쓰기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동료 시인들과, 왼쪽부터 박봉우, 신동엽, 하근찬

1959년 석림石林이라는 필명으로 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신춘문예 입선작으로 뽑힌다. 아픈 남편과 떨어져 걱정과 그리움 속에 살던 아내는 작품이 나온 신문을 들고 돈암동 집 뒷산에 올라 한참을 울었다. 시가 발표된 후 1960년에 돈암동 고지대의 작은 단칸방을 얻어 그리워하던 가족과 함께 살림을 꾸린다.

돈암동 시절 시인 안도섭과 대하소설 「휴전선」으로 유명했던 박봉우 시인도 근처에 살았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때가 많았다. 이후 식구들 사이에서 '동원네 집' 으로 통하던 작은 집과 개천가에 있던 집 등 서너 군데 셋방을 전전하였다.
사범학교를 졸업했던 신동엽은 자신의 작품을 들고 명성여고 교장을 찾아갔다. '내 작품을 읽고 국어교사로 쓸 만하면 써 보시오' 라며 작가로서 자신감을 내 비쳤고 1961년부터 명성여고에서 국어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62년에는 돈암동(현재 동선동 5가 45번지)에 25평짜리 자그마한 한옥을 마련하였고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이 집에서 장편서사시 「금강」과 「껍데기는 가라」 등 대표작을 집필하였다.

우리 식구가 문간방 아닌 안채를 차지하고 살 게 된 건, 즉 집을 마련한 것은 내가 대여섯 살 되던 무렵이었다. 역시 돈암동에 자리한 25평짜리 자그만 한옥이었는데, 7년 후 아버지는 이 집에서 돌아가셨다. 아무렇든지 이 집에서 우리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막내 동생 우섭이 태어났으며, 난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손수 뜨개질과 바느질로 우리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마당에 화초를 가꾸는 등 집안 구석구석에 알뜰한, 더없이 가정적인 분이었다. 아버지는 낮 동안 안방에서 글을 쓰시고 오후엔 명성여고에 국어 선생님으로 나가셨다.

신정섭(신동엽의 딸), 「대지를 아프게 한 못 하나 아버지 얼굴가에 그려넣고」

'우리의 검은 땅을, 그리고 그 평야에서 '인간정신' 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13]던 신동엽은 한민족 고유의 역사인식과 민족애,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민중의 저항의식을 시로 읊었다. 1960년 4.19혁명을 겪은 뒤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시를 쓰기로 마음 먹는다. 함성과 열기로 가득한 거리를 배회하며 4.19혁명을 온몸으로 느낀 생생한 경험이 장편서사시 「금강」의 시작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쓴 최초의 작품인 「금강」은 '우리 민족사에서 순간이나마 가장 환한 섬광이 반짝인 것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었다' 고 말한 작가의 신념이 담긴 작품이었다.



신동엽의 시작노트

단 석 줄의 시도 읽지 않는 민중에게 어떻게 그 길고 긴 시를 읽히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다. 그래서 나는 시중 생활어를 쓰고 스토리도 교향시극처럼 엮기로 했다.[14]

완성을 하기까지 6년 동안 명성여고에 나가는 것 외에 돈암동 집에서 온전히 글을 쓰는 데 몰두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곳에 서린 아픔과 아름다움을 노트에 기록하고 26장 7천 행에 달하는 시로 담아냈다. 같은 해 발표된 대표작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동학농민운동과 4.19혁명의 역사인식과 참여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도 내 인생만은 조용히 다스려 보고 싶다. … 그날이 와서 이 옷을 벗을 때까지 산과 들을 바람결처럼 흘러가는 것이다"라던 신동엽은 건강악화로 1969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돈암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다. 신동엽은 세상을 떴지만 그의 시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으로 시대를 함께 겪었고, 신경림과 조태일 등 민족문학을 전개하는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십 년 동안 「금강」, 「껍데기는 가라」, 「아사녀」 등 70여 편의 시와 시론詩論을 남긴 신동엽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삶을 담은 울림으로 아직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다.

(10) 박완서 朴婉緖 1931~2011

박완서는 1931년 개성에서도 20여리 떨어진 시골마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났다.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자식을 공부시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바람을 갖고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 속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던 고향과 달리 현저동 셋방은 어린 소녀에게 낯선 곳이었다. 어머니는 신여성으로 딸을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사정에도 공부를 시켰고, 박완서는 당시 명문이었던 숙명여고에 들어갔다. 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중견소설가로 활동하던 박노갑이었다. 일제강점기 국어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선생님의 영향으로 시를 좋아하게 되고, 현실과 자신의 경험이 담긴 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박완서

같은 반이었던 소설가 한말숙, 시인 박명성, 김양식이 문학의 길을 갔다. 고교 시절 한 친구의 집이 '종로서관'을 열어 학교를 마치면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곤 하였다.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 입학 닷새 후 한국전쟁이 터진다. "6.25가 없었다면 나는 소설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전쟁은 박완서의 개인적인 삶과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 가족들과 헤어지고, 북으로 끌려갈 뻔 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후 미군부대에서 일하던 때의 경험과 피폐해진 공간 속에서 겪은 삶은 이후 박완서의 글 곳곳에서 드러난다.



돈암동 집 앞에서 남편과 조카들

한국전쟁 전 좌익운동에 투신했던 오빠 때문에 현저동을 떠나 돈암동으로 이사하고, 돈암동에서도 집을 세 번이나 옮겨야했다. 그래도 돈암동은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어머니는 바람대로 딸을 가장 좋다는 서울대학에 보낸 기쁨과 뿌듯함을, 오빠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과 안정감을, 박완서는 여대생이 되어 교정을 거닐고, 문학소녀의 꿈을 펼치는 첫 발을 내딛는 설렘을 간직 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전쟁 후 다시 돌아온 돈암동은 이전과 다른 삶이 기다리는 곳이었다. 성북경찰서에서 널찍한 양회 다리를 건너 신안탕 뒤로 집들이 늘어선 골목 안에 이웃이라고는 한 집도 없었다. 텅텅 빈 집들만 있는 그 적막함이 전쟁을 떠올리게 하였다. 남과 북, 누구를 위한 대립인지도 모른 채 서로를 죽인 전쟁 중에 오빠가 총상을 입고 세상을 뜨고 만다.

어머니와 올케, 어린 조카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야 했다. 숙부가 지게를 져 품을 팔고, 숙모는 뚝섬 살곶이 다리 밑에서 푸성귀를 받아다가 돈암시장에서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 막막한 생활 속에 이웃의 주선으로 미군부대에 일자리를 얻어 형편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답답한 현실은 그대로였다.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책에서 낙을 구했다' 는 말처럼 책은 위로를 얻고, 현실을 잊게 하는 도피처였다.

1953년 결혼을 하며 돈암동을 떠난 박완서는 1970년 마흔 살이 되던 해 문단에 등단하였다. 전쟁 직후 미군부대 초상화부에서 일할 때 만난 화가 박수근의 이야기를 쓴 「나목」이 여류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된 것이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나목」, 「엄마의 말뚝」, 「부처님 근처」 등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설에서 그려냈다. 책만이 삶의 빛이었던 때 안감내 천변 헌책방에서 알게 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남자와 만남은 뒤에 「그 남자네 집」이라는 소설의 소재가 된다.



왼쪽부터 방혜자(화가), 이해인(수녀), 이인호(역사학자), 박완서

내 처녀적의 마지막 집도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 사이에 있었다. 내가 시집갈 무렵 친정집도 딴 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서 다시는 가볼 기회가 없었다. … 그제서야 내가 천주교회와 신선탕 중간 지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나의 옛집은 바로 신선탕 뒷골목에 있었고, 그 남자네 집은 천주교단 뒤쪽에 있었다. 천주교당도 신선탕도 천변길에 있었다. 교회는 증축을 했는지 개축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으되 외양은 많이 바뀌고 커져 있었지만 목욕탕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이고 이름까지 그대로였다. 세상에 오십 년 전 그 목욕탕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 오십 년이면 목욕탕이 온천이나 사우나나 찜질방으로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아닌가.

박완서, 「그 남자네 집」

그동안 쌓인 이야기가 많았던 것일까, 박완서만의 깊은 통찰력과 날카로운 시선, 뛰어난 문체가 담긴 작품을 연이어 발표한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같은 작품에서 그려낸 당당한 여성상과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성해방 문학의 작가' 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위선과 허영심,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인 세태를 작품을 통해 비판하기도 하였다.

40여 년 동안 그가 남긴 장편 15편과 단편 80여 편, 동화, 산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에는 해방 후 격변의 시간과 시대를 살아낸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가족처럼, 함께 살아간 시대를 이야기 해준 작가는 2011년 환한 웃음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다.



돈암동성당

더 알아보기

박경리 朴景利 1926~2008



대하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는 192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박금이朴今伊이다. 졸업한 이후 통영에서 김행도와 결혼한 뒤 인천, 황해도에서 생활하다 한국전쟁 중에 부역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향으로 피난을 간다. 좌익이니 부역이니 하는 꼬리표와 사람들의 시선은 가난한 생활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1954년 다시 올라온 서울에서 친구의 소개로 진주여고 선배인 김동리의 부인 김월계를 알게 된다. 김월계를 만나러 돈암동 집에 찾아가던 날, 미리 써 두었던 시 몇 편을 가지고 가서 김동리에게 보였다. 마루에 걸터앉은 채 박경리의 시를 읽은 김동리는 시보다 소설을 써 보라고 권유하였다. 학생시절 썼던 단편 「불안지대」를 고쳐 다시 한 번 김동리에게 보였고, 이 작품은 김동리의 추천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박경리' 라는 필명과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1955년 8월 《현대문학》에 실렸다.

이듬해 8월에는 「흑흑백백」이 같은 지면에 실렸다. 이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돈암동에 작은 식료품점을 열어 생계를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표류도」(1960), 돈암동에 살 때 구상한 「노을진 들녘」(1961)이 잇달아 내성문학상과 현대문학상을 받으며 문단 안팎에 이름을 알린다.

1960년대초 돈암동을 떠나 정릉으로 이사를 한 그는 우리 문단에 큰 획을 그은 소설 「토지」 집필을 시작한다. 1969년 《현대문학》에 연재를 시작한 「토지」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0여 명의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민족의 한과 역사를 박경리만의 문체로 표현한 작품이다. 1980년부터는 강원도 원주에 내려가 외부와 접촉을 멀리하고 텃밭을 일구며 집필에 집중하였다. 첫 회를 발표한 지 26년 만인 1994년 8월 15일에 완결된 「토지」는 '광복 이후 한국문단이 거둔 최고의 수확'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토지」 완간 이후 원주에 머물며 후학들을 가르치고, 찾아온 손님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던 박경리는 2008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정지용 鄭芝溶 1902~1950?



「향수鄕愁」의 시인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났다. 옥천공립보통학교를 마치고 1918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박종화, 이태준 등과 사귀었다. 졸업 후 일본에 유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모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1933년 《가톨릭청년》 편집고문을 맡는다. 이때 이상李箱의 시를 세상에 알리는 한편 이태준, 유치진, 김기림 등과 함께 '구인회' 를 조직하여 '순수예술추구' 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1939년에는 이태준과 함께 《문장》의 심사위원을 지냈는데, 한국문단에 추천제를 정착시킨 이 잡지를 통해 청록파 시인 박목월 · 조지훈 · 박두진이 발굴되었다.

정지용의 대표작 「향수」는 일본 유학시절인 1927년 『조선지광朝鮮之光』에 발표한 시이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조차 억압받던 때 순수한 우리말로 생생하게 고향을 그려낸 이 시로 새로운 시 언어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정지용시집』과 『백록담』, 『지용시선』, 산문집 『지용문학독본』과 『산문(부역시)』 등을 펴냈다.

서울 재동과 북아현동, 경기도의 부천 등으로 옮겨 살던 정지용은 1946년 돈암동 산11번지로 이사한다. 형제처럼 막역하게 지낸 김동리와 자신이 경향신문 편집국장으로 초빙한 염상섭이 근처에 살았다. 경향신문 주간을 그만두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중 자신이 반대하던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의되자 녹번리 초당에 은둔하며 지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며 그의 작품도 한동안 출판되지 못하였다. 1988년 해금조치가 된 이후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정지용의 문학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또한 1930년대 채동선이 곡을 붙여 발표한 가곡과 김희갑이 작곡한 대중가요 「향수」는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다.



성북동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삼선교 돈암교를 거쳐 우리 동네 앞을 흐르던 개천을 우리는 그때 안감내라고 불렀다. 안감내는 수량이 풍부하고 맑아서 동네사람들은 큰 빨래만 생기면 그리로 들고 나갔다. 개천과 나란히 난 천변길은 인도와 차도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너른 한길이고 개천 쪽으로는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어 차가 많지 않은 당시에는 타동네 사람들까지 일부러 산책을 올 정도로 한적하고 낭만적인 길이었다.

박완서, 「그 남자네 집」



돈암동 지도

■ 없어진 곳
■ 현재 위치



적조사

흥천사

우촌초등학교



돈암초등학교

돈암장

돈암교

동활인서

평산목장

동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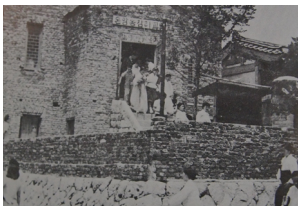
삼선교


서라벌
예술대학
선술집/호떡골목
나무시장
성신여대입구역
(돈암역)
나무시장
태극당
전차종점
초등학교
돈암재래시장
돈암제일시장
돈암교
깜장다리
돈암동성당
성북경찰서
성북구청
신암탕

부록

돈암동 문화유산
수록 인물 목록
자료 출처




윗줄 삼군부 총무당, 아랫줄 돈암장, 흥천사, 돈암교회, 돈암동 성당

삼군부 총무당 三軍府 總務堂

조선시대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삼군부는 태조가 군사권의 통제를 위해 고려 말의 군사체계를 정비하여 만든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의 줄임말이다. 조선 초기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와 마주보는 광화문 앞 서쪽(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위치하였다. 행정 · 군사제도가 바뀌며 명칭과 규모의 변화를 겪었다. 흥선대원군 때 최고의 군사기관이었으나 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난 이후 기능이 축소되고, 19세기 말 적극적인 근대문물 수용정책이 추진되며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설치와 함께 폐지되었다.

삼군부 청사는 정당正堂인 총무당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청헌당淸憲堂과 덕의당德義堂을 두었다. 삼군부의 기능약화와 함께 통리기무아문의 청사로 이용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보병대가 주둔하였다. 1931년 조선보병대 해산 이후 삼군부 청사는 조선총독부의 체신국의 보험관리국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덕의당은 없어지고, 총무당은 돈암동(512-160)으로 옮겨졌다.

총무당 건물은 삼군부의 군사지략을 의논했던 주당主堂으로 조선 후기 관아건물 양식이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건물로,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각 각의 온돌방 옆에는 광이 이어져 있다. 1942년부터 경기도 공무원 연수장으로 사용되다 이후 서울시 직업훈련원 사무실로 쓰였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1978년)되었고, 이듬해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옛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돈암동수정 2012.12.285:15PM 페이지106

돈암장 敦岩莊

돈암장은 1939년 조선 후기 내시 송성진이 지은 집으로 대목장 배희한(무형문화재 제74호)이 책임목수로 참여하였다. 안채와 행랑채, 양옥 건물 세 채가 있었는데, 마당 안쪽으로 노송老松과 잣나무, 전통 석물이 어우러진 집이었다. 쇠못을 전혀 쓰지 않은 짜임의 목조건물은 서까래와 내실 기둥을 모두 백향목으로 사용하였다. 사대부 집과 궁궐 건축양식에 개화기 양식이 더해져 응접실 등에는 유리문을 달았다.

해방 후에는 조선타이어주식회사 사장이었던 장진영이 거주하고 있었다. 세 채 중 한 채는 장진영이 사용하고 안채 건물과 또 다른 건물은 1945년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이 사용하였다. 이승만이 거처하는 동안 돈암장에는 수많은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회담과 회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승만 주위에 반대세력이 많아지자 이승만은 마포에 있는 별장을 거쳐 이화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돈암장은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증축과 개축으로 원형을 잃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역사적 현장이자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목조 팔작지붕의 한옥 본채 한 동은 등록문화재 제91호(동소문동4가 103)로 보전되었다.

흥천사 興天寺 (신흥사 神興寺)

조선시대 사찰인 흥천사는 태조가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1397년 정릉(현재의 정동 일대) 동쪽에 세운 절이다. 170여 칸의 대가람으로 조계종의 본산이 된 흥천사에서는 왕실의 제사나 왕가의 치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 그러나 도성 안에 능을 두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하여 1409년 2월 흥천사만 남기고 묘를 동소문 밖 사을한沙乙閑의 산기슭으로 이장하였다.

이후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불교를 억압하면서 왕실의 지원이 줄어들었다. 16세기 화재로 전각이 완전히 불탔고, 1569년에는 정릉 부근의 함취정含翠亭 옛터로 흥천사를 옮겨 짓고 신흥사라 이름을 고쳤다. 1794년에는 승려 성민과 경신이 새롭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자리(돈암동 595)로 옮겼다.

근대에 들어와 새롭게 전각이 들어서면서 가람이 크게 확장되었다. 사찰 내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이 5세 때 쓴 글씨가 남아 있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인 순정효황후가 한국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기도 했다. 1985년 극락보전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6호, 명부전은 제67호로 지정되었다.

미아리교회 [돈암제일감리교회]

돈암 지역에 교회 예배당이 생겨난 것은 1908년이다. 동대문 안 예배당의 신자수가 늘자 동대문교회는 1907년부터 동대문 외곽지대에서 선교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미아리에 있는 초가 한 채를 구입하여 동대문교회의 기도처인 미아리교회를 설립하고, 1925년에는 미아리교회에서 돈암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40년 시가지구획 정리와 도로 확장으로 교회당이 헐리자 교인들이 힘을 합하여 돈암정에 25평의 대지를 사 두 번째 예배당을 지었다. 초라한 양철지붕의 판잣집이었으나 동대문 밖에서 가장 번창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 교회당은 불타 없어졌고, 1953년에는 돈암초등학교 근처 산비탈에 넓은 터(돈암동 117-2)를 닦아 세 번째 예배당을 세웠다. 1960년 다시 한 번 예배당을 옮겨 현재 위치(동선동5가 70-35)에 자리를 잡았다.

천주교 돈암동성당 敦岩洞聖堂

박완서의 소설 속 배경으로 잘 알려진 돈암동성당은 1955년 혜화동 본당의 세 번째 자본당으로 세워졌다. 1950년대의 석조성당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전쟁 이후 예배당은 건축물의 견고성에 더욱 역점을 두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화강암을 외벽에 붙였다.

건물의 디자인은 준고딕양식으로 석조건물에 성곽과 같은 높은 종탑을 세우고 아치형의 문이 안과 밖을 연결하게 하였다. 성당에는 김겸순 수녀가 그린 유리화 작품이 있고, 성당 입구에는 성모상이 세워져 있다. 성모상은 한국적 미의식과 민족정서를 조형언어로 표현한 조각가 최종태가 조각하였다. 한국 성聖미술의 토착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법정스님과 인연으로 1999년 성북동 길상사에 관음보살 상을 만들기도 했다.

맑은 물의 안감내가 복개되었다 다시 개천으로 바뀌어 온 시간만큼 돈암동 성당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새로운 성당 건물은 2000년에 준공된 것이며, 행정구역 변화로 지금은 동선동2가(1-2)에 속해 있다.

그 집

고은

아직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대 어릴 적
돈암동 개울 건너 그 집
삼선교 지나
동도극장 지나
돈암동 전차종점 못미처
다락방과
높은 장독대가 있는 그 집 자리
아직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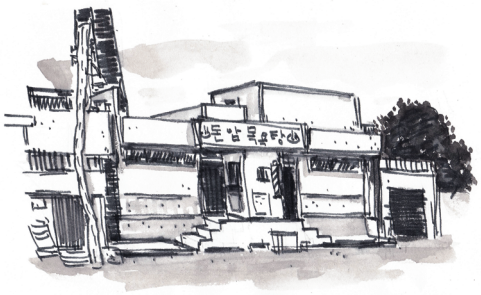
(중략)













돈암동수정 2012.12.285:15PM 페이지112

본문 수록 인물 목록

돈암동의 예술인은 청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강세황(姜世晃) 1712-1791 표암(豹菴)
조선후기 문인 · 서화가 · 서화비평가. 서울 출생. 시 · 서 · 화의 삼절三絕로 불렸고 그림과 서화비평 활동을 주로 하였다. 남종문인화를 조선후기 화단의 주도화풍으로 정착시키고 김홍도 · 신위 등의 제자를 길렀다. 진경산수화첩인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을 남겼다.

곽종원(郭鍾元) 1915-2001 춘파(春波)
평론가 · 교육자. 경북 고령 출생. 1938년 《만선일보》에 수필 「이역異域에 젖은 애상」을 발표했고, 《매일신보》에 「문학의 함축성」을 발표함으로써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예술원 문학분과 회장, 예술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광섭(金珖燮) 1905-1977 이산(怡山)
시인 · 교육자. 함북 경성 출생. 시, 평론, 수필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작품을 발표했다. 시집에 『동경』(1938), 『해바라기』(1957), 『성북동비둘기』(1966) 등이 있다. 중앙문화협회, 한국자유문학가협회 등 문학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김구용(金丘庸) 1922-2001
시인. 경북 상주 출생. 본명은 영탁永卓. 1949년 시 「산중야山中夜」를 《신천지》에 발표하며 등단하였고 1956년에는 제1회 현대문학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I』(1969), 『시』(1976),『구곡九曲』(1978),『송백팔頌百八』(1982) 등의 작품집이 있다.

김기림(金起林) 1908-? 편석촌(片石村)
시인. 함북 학성 출생. 1933년 김유정 · 이태준 등과 '구인회九人會'에 참가하였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시집 『기상도氣象圖』(1936), 『바다와 나비』(1946), 수필집 수필집 『바다와 육체』(1948) 등이 있다.

김내성(金來成) 1909-1957 아인(雅人)
소설가. 평안남도 대동 출생. 일본 와세다대학교 유학 중 일본 탐정소설 전문지에 「타원형의 거울」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1939년 《조선일보》에 「마인」을 발표하며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가 된 후 외국 탐정소설 번안, 라디오 방송소설로도 활동을 넓혔다. 작품으로 『똘똘이의 모험』(1946),『청춘극장』(1953) 등이 있다.

김달진(金達鎭) 1907-1989 월하(月下)
시인. 경남 창원 출생. 1929년 《문예공론》에 시 「잡영수곡雜詠數曲」으로 등단하였다. 광복 후 동아일보 기자, 동국대학교 역경원 역경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표 시집 『청시』(1940)와 『올빼미의 노래』(1983),『산거일기』(1990) 등이 있다.

김동리(金東里) 1913-1995 동리(東里)
소설가. 경북 경주 출생. 1935년 중앙일보에 「화랑의 후예」, 이듬해 《동아일보》에 「산화」가 거듭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무녀도」(1936),「황토기」(1939),「역마」(1948)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을 제창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법린(金法麟) 1899-1964 범산(梵山)
승려 · 독립운동가 · 정치가. 경북 영천 출생. 1915년 동래 범어사梵魚寺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1930년에는 한용운의 뜻을 이어 항일 비밀결사조직 만당卍黨을 결성하였다. 1952년 문교부장관, 195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 제3대 민의원으로 피선되는 등 정치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1963년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김양식(金良植) 1931- 초이(初萬)
시인. 서울 출생. 1969년 시 「풀꽃이 되어 풀잎이 되어」가 《월간문학》에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초이시집』(1974), 『새들의 해돋이』(1986), 『하늘 먼 자락에 구름 날리면』(2009) 등이 있다.

김억(金億) 1896-? 안서(岸曙)
시인 · 평론가. 평안북도 정주 출생. 본명은 희권熙權.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의 기자를 지냈으며 《창조》와 《폐허》동인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 프랑스 상징주의 시와 시론을 소개하고 『오뇌의 무도』를 통해 상징 시풍을 1920년대 초기시단에 정착시켰다. 제자인 김소월을 문단에 길러내고 함께 민요시 창작에 참여하였다.

김원(金源) 1912-1994
화가. 평양 출생. 본명은 원진源珍. 1947년 서울에 정착하여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풍경 작품들을 출품하였고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1963년부터 사실주의 화가 단체인 목우회에 참여하며 현지를 답사하며 풍경화를 그렸다. 1955년부터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자혜(金慈惠) 1915/16-?
기자. 독립운동가 김조길의 장녀이자 소설가 주요섭의 부인이다. 1930년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하고 1932년 월간 여성교양잡지 《신가정》의 취재와 실무를 맡았다. 1945년 김활란 박사를 중심으로 창립된 한국여학사 협회에 참여하여 여성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교육과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에 펼쳤다.

김정설(金鼎卨) 1897-1966 범부(凡夫)
동양철학자. 경북 경주 출생. 1915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1934년 최범술의 주선으로 다솔사 등 사찰에서 강의하며 불교철학의 연구에 몰입하였다. 1950년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 때 동래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55년에는 계림대 학장이 되었다.

김조길(金祚吉) 1880-1946
독립운동가. 강원 춘천 출생. 1919년 춘천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선언서와 독립문서, 독립운동노래,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 등 4통의 문서를 배포해 군중을 독립운동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김희갑(金喜甲) 1936-
작곡가 · 기타연주자. 평양 출생. 많은 가요와 뮤지컬, 방송음악을 작곡하였다. 대표작으로 가요 〈향수〉, 〈킬리만자로의 표범〉, 〈사랑의 미로〉 , 뮤지컬 〈명성황후〉 등이 있다.

나운규(羅雲奎) 1902-1937 춘사(春史)
배우 · 영화감독. 함북 회령 출생. 1925년부터 배우로 활동하다 이듬해는 자신이 각본과 감독, 주연을 맡아 무성영화 《아리랑》을 만들었다. 민족현실과 저항정신을 담은 민족영화의 선구자로 한국영화를 성장시켰고, 나운규프로덕션을 조직하여 이태준의 소설 『오몽녀』 등 문예작품을 영화화하는데도 주력하였다.

노수현(盧壽鉉) 1899-1978 심산(心汕)
화가. 황해도 곡산 출생. 안중식과 조석진의 지도 아래 전통화법을 수학하였다. 1923년 서화미술회 동문들과 동연사를 만들고 전통의 답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향의 화풍을 추구하였다. 1945년 이후부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 위원 및 고문, 예술원 회원 등을 지냈다.

도상봉(都相鳳) 1902-1977 도천(陶泉)
화가. 함경남도 홍원 출생. 1916년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고희동에게 유화를 배운 후 일본으로 건너가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1949년부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 대한미술협회 위원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활약하였다.

모윤숙(毛允淑) 1910-1990 영운(嶺雲)
시인. 함남 원산 출생. 시집 『빛나는 지역』(1933), 『정경』(1959), 『풍토』(1970), 수필집 『내가 본 세상』(1953) 등을 발간하였다. 제3차 UN총회 한국 대표(1948),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장(1980) 등 사회활동을 하였다.

박경리(朴景利) 1926-2008
소설가. 경남 통영 출생. 본명은 금이今伊. 1955년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계산」을《현대문학》에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이후 「불신시대」(1957), 『김약국의 딸들』(1962)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였다.

박계주(朴啓周) 1913-1966 서운(曙雲)
소설가. 간도 용정 출생. 1929년《간도일보》에 「적빈赤貧」이 입선되었고, 1937년《새사람》의 동인 겸 편집장을 지냈다. 1938년 「순애보」가《매일신보》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작품 『순애보』,『죄 없는 죄인』(1947), 『진리의 밤』(1957) 등이 영화화되었다.

박노갑(朴魯甲) 1905-1951 도촌(島村)
소설가. 충남 논산 출생. 1933년 조선중앙일보에 단편소설 「안해」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자와 교사로 일하며 소설 50여 편을 발표하였다. 1951년 소식이 끊겼다. 작품으로 「꿀」(1937), 「고양이」(1938), 「사십년」(1940) 등이 있다.

박두진(朴斗鎭) 1916-1998 혜산(兮山)
시인. 경기도 안성 출생.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문장》에 시 「향현香峴」, 「묘지송墓地頌」 등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46년 박목월 · 조지훈과 함께 『청록집』을 간행하며 청록파시인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작품으로 『거미의 성좌』(1962),『고산식물』(1973) 등과 1984년에 발행한 『박두진 전집』이 있다.

박목월(朴木月) 1916-1978
시인. 경북 경주 출생. 본명은 영종泳鐘.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문장》에 「길처럼」,「그것은 연륜이다」 등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46년 박목월 · 조지훈과 함께 『청록집』을 간행하며 청록파시인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작품으로 「청노루」(1946),「나그네」(1946) 등이 있다.

박범신(朴範信) 1946-
소설가. 충남 논산 출생. 1973년《중앙일보》에 소설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며 등단하였다. 1978년 첫 창작집 『토끼와 잠수함』을 낸 이래 『죽음보다 깊은 잠』(1979), 『나마스테』(2005),『고산자』(2009)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병래(朴秉來) 1903-1974 수정(水晶)
의사. 충남 논산 출생.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내과를 전공하였으며, 1935년 성모병원(현 가톨릭대학 의학부속병원)을 세워 초대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대한결핵협회장 · 대한내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보건후생분야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말년에는 1929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조선백자를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박봉우(朴鳳宇) 1934-1990 추풍령(秋風嶺)
시인. 전남 광주 출생. 1956년《조선일보》신춘문예에 시「휴전선」이 당선되며 문단에 등단하였다. 1962년 이후에는《신춘시》동인으로 활동했다. 시집으로『4월의 화요일』(1962),『황지의 풀잎』(1976),『딸의 손을 잡고』(1987) 등이 있다.

박수근(朴壽根) 1914-1965
화가. 강원도 양구 출생.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봄이 오다〉가 입선하고, 195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천작가, 1962년에는 심사위원이 되었다. 대표작으로 〈절구질하는 여인〉(1952), 〈빨래터〉(1954), 〈고목과 여인〉(1964) 등이 있다.

박완서(朴婉緖) 1931-2011
소설가. 경기 개풍 출생. 1970년《여성동아》에「나목」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이후 한국전쟁과 분단문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의 현실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활동하였다. 작품으로「휘청거리는 오후」(1977),『엄마의 말뚝』(1980),『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등이 있다.

반야월(半夜月) 1917-2012
가수 · 작사가 경남 마산 출생. 본명 박창오朴昌꾬. 1939년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고 해방 이후에는 작사가로 활동이 두드러졌다. 〈잘있거라 항구야〉(1940), 〈불효자는 웁니다〉(1940) 등을 부르고 〈울고 넘는 박달재〉(1950)와 〈단장의 미아리고개〉(1956) 등을 작사하였다.

박종화(朴鍾和) 1901-1981 월탄(月灘)
시인 · 소설가. 서울 출생.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으나,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역사소설인「세종대왕」은 1969년부터 8년 2,456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하여 최장기록을 남겼다. 한국문학가협회 초대회장, 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작품으로「임진왜란」(1954),「제왕삼대」(1962),「월탄삼국지」(1964) 등이 있다.

방인근(方仁根) 1899-1975 춘해(春海)
소설가. 충남 예산 출생. 1924년에는 사재私財를 들어 종합 월간 문예지《조선문단》을 창간하였다. 광복 후에는 영화에도 관여, 1954년에는 춘해 프로덕션의 사장을 지냈다. 작품으로는『마도魔都의 향불』(1934),『쌍홍무雙紅舞』(1939) 등이 있다.

변관식(卞寬植) 1899-1976 소정(小亭)
화가. 황해도 옹진 출생. 외조부인 소림 조석진에게서 서화를 배우고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21년 서화협회 회원, 1922년 동연사에서 활동하며 전통적인 남화계에 독특한 적묵법積墨法을 구사하였다. 대표작으로 〈성북정협〉(1928), 〈산수춘경도〉(1944), 〈해금강 삼선암 추색도〉(1955)가 있다.

변영로(卞榮魯) 1898-1961
영문학자 · 시인. 서울 출생. 1919년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였고 1920년《폐허》동인으로 참여하였다. 1933년 동아일보기자, 1934년《신가정》주간을 지내다 광복 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되었다. 1955년에는 비엔나국제펜클럽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작품으로「논개」(1922),「봄비」(1922) 등이 있다.

서정주(徐廷柱) 1915-2000 미당(未堂)
시인. 전북 고창 출생. 1936년 동아일보에 시 「벽」이 당선되고, 김동리 · 함형수 등과 함께 『시인부락』을 창간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9년 한국문인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시문학을 강의하였다. 작품으로 『화사집花蛇集』(1941),「국화옆에서」(1947), 『귀촉도』(1948) 등이 있다.

설의식(薛義植) 1900-1954 소오(小悟)
언론인 · 평론가 함남 단천 출생. 동아일보 기자와 《신동아》 편집국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해방이후』, 『해방이전』, 『화동시대花洞時代』 등이 있다.

손병희(孫秉熙) 1861-1922 의암(義菴)
독립운동가 · 천교도지도자. 충북 청원 출생. 1882년(고종 19) 동학에 입교하여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을 이끌었다. 1906년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고 제3세 교주에 취임하였다. 보성 · 동덕 등의 학교를 인수하여 교육 사업에 힘썼다. 민족대표 33인으로, 3 · 1운동을 주도하였다.

손숙(孫淑) 1944-
배우 · 방송인. 경남 밀양 출생. 연극 《상복을 입은 엘레크라》로 데뷔하여 방송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극배우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6대 환경부장관을 지냈다.

송진우(宋鎭禹) 1889-1945 고하(古下)
정치가 · 언론인. 전남 담양 출생. 3.1운동 때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이었다. 동아일보사에서 30여 년 간 사장 · 고문 · 주필 등을 지냈으나 일장기말살사건으로 사임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맞서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고 정부수립에 힘썼다.

신경림(申庚林) 1936-
시인. 충북 충주 출생. 1955년 『문학예술』에 「갈대」, 「묘비」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73년 첫 시집 『농무』를 간행하고 이듬해 만해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 『농무』(1973), 『가난한 사랑노래』(1988), 『갈대』(1996), 『낙타』(2008) 등이 있다.

신동엽(申東曄) 1930-1969
시인. 충남 부여 출생. 1959년 장시長詩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조선일보에 입선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1년부터 명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1963년에는 첫 시집 『아사녀阿斯女』를 발표했다. 작품으로 「껍데기는 가라」(1967), 『금강』(1967),『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1979) 등이 있다.

안도섭(安道燮) 1933- 오석(烏石), 지암(芝庵)
시인. 전남 보성 출생. 1958년 조선일보에 시 「불모지」가, 평화신문에 시 「해당화」가 각각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풀잎서장』(1984), 『살아있다는 기적』(1990), 『돌에도 꽃이 핀다 했으니』(2004) 등이 있다.

안수길(安壽吉) 1911-1977 남석(南石)
소설가. 함경남도 함흥 출생. 1935년 단편 「적십자병원장」이 『조선문단』에 당선되며 본격적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1937년 『만선일보』가 발족되며 염상섭 · 신형철 · 이석훈 등과 같이 일을 했고 서라벌예대,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작품으로 「제삼인간형」(1953),『북간도』(1959~67), 『창을 남으로』(1967~68) 등이 있다.

안중식(安中植) 1861-1919 심전(心田)
화가. 서울 출생. 1991년 영선사 일행으로 중국 천진을 다녀오며 조석진과 평생지기가 되었다. 어진도사御眞圖寫를 지냈고, 서화미술원에서 우리나라 근대 화단을 이끈 이용우, 노수현, 이상범 등을 가르쳤다. 기명절지화와 산수화에 능하였다.

안창호(安昌浩) 1878-1938 도산(島山)
독립운동가 · 교육자. 평안남도 강서 출생. 독립협회 · 신민회 · 흥사단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여 임시정부 육성에 힘썼다.

양백화(梁白華) 미상
번역문학가 · 언론인. 1919년 매일신보에 가극歌劇《비파기琵琶記》 번역을 연재, 1921년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을 박계강과 함께 번역 연재하였다.

양원달(梁元達) 1916-
번역가 · 수필가. 황해도 해주 출생. 성균관대 · 서라벌예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59년 펜클럽 한국본부 사무국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수필집 『13월』(공저,1960)와 번역서 『모파상선집』(1955),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55) 등이 있다.

염상섭(廉想涉) 1897-1963 횡보(橫步), 제월(霽月)
소설가. 서울 출생. 1920년《폐허》의 동인으로 참여하며 문단활동을 하였다. 1921년《개벽》지에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로 꼽히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였고, 1946년에는《경향신문》창간과 함께 편집국장을 지냈다. 작품으로 『만세전』(1924) 『삼대』(1931) 등이 있다.

오상순(吳相淳) 1894-1963 선운(禪雲), 공초(空超)
시인. 서울 출생. 1920년《폐허》의 동인으로 참여하며 수필 「시대고와 그 희생」으로 등단하였고, 1921년 에는 시 17편과 평론 등 동인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을 게재하였다. 1930년에는 불교중앙학림(동국대학교 전신)의 교수를 지냈다. 작품으로 「아시아의 마지막 밤풍경」(1923),「방랑하는 마음」(1928)이 있다.

오세창(吳世昌) 1864-1953 위창(葦滄)
독립운동가 · 서예가 · 언론인. 서울 출생.《만세보》,《대한민보》 사장을 역임하며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활약하였다. 전각과 서예에도 뛰어났으며 1918년에는 서화협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오영수(吳永壽) 1909-1979 월주(月洲) 난계(蘭溪)
소설가. 경남 울주 출생. 1949년 단편소설 「남이와 엿장수」가《서울신문》에 입선, 이듬해 단편 「머루」가 당선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뒤 부산중학교에 전임하였다가 1955년《현대문학》의 창간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작품으로는 「갯마을」(1953), 「명암」(1958), 「메아리」(1959) 등이 있다.

오윤(吳潤) 1946-1986
조각가 · 판화가. 부산 출생. 소설가 오영수의 장남이다. 1968년부터 주로 사회적 시각의 목판화 작업에 열중하며 1979년의 '현실과 발언그룹'을 비롯한 민중 미술 운동으로 이어졌다. 1983년까지는 거의 흑백 목판화로 일관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탈춤〉, 〈동학〉, 〈대지〉 시리즈 등이 있다.

유치진(柳致眞) 1905-1974 동랑(東朗)
극작가. 경남 통영 출생. 시인 유치진의 형이다. 민족주의적 리얼리즘 작품을 만들었으며, 서울예술전문대의 전신인 연극아카데미를 개설(1962)하였다. 작품으로 데뷔작인 <토막土幕>(1932)과 <처용의 노래>(1953), <단종애사>(1957) 등이 있다.

이광래(李光來) 1908-1968 온재(溫齋)
극작가 · 연출가 · 연극이론가. 경남 마산 출생. <산토끼>동요작가 이일래의 동생이다. 1935년 <촌선생>이 《동아일보》에 당선됨으로써 등단하였다. 1949년 한국연극학회의 발족에 참여하고 1953년 서라벌예술대학 초대 연극학과장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는 <견우와 직녀>(1954), <지옥문을 열어라>(1966) 등이 있다.

이광수(李光洙) 1892-1950 춘원(春園)
시인. 평안북도 정주 출생. 1917년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발표하였다. 독립선언서 기초 작성,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 이후 친일활동에 가담하여 1939년에는 조선문인협회 회장을 맡았다. 작품으로 『흙』(1932-33), 『원효대사』(1942) 등이 있다.

이근배(李根培) 1940- 사천(沙泉)
시인. 충남 당진 출생. 1961년 경향신문에 시조 「묘비명」이, 서울신문에 「벽」이 각각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64년 동인지 《신춘시》의 동인으로 활약, 시와 시조를 동시에 발표했다. 시집 『노래여 노래여』(1981), 『동해 바닷 속의 돌거북이 하는 말』(1982), 『한강』(1985) 등이 있다.

이상(李箱) 1910-1937
시인소설가. 서울 출생. 본명은 김해경金海卿.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1933년 다방 '제비'를 차리고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 등과 교류하였다. '구인회'에 가입하고 박태원 소설에 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작품으로 「오감도」(1934), 「날개」(1936) 등이 있다.

이상범(李象範) 1897-1972 청전(靑田)
화가. 충남 공주 출생. 서화미술원을 수료한 뒤 1917년 스승 안중식에게 배웠다. 1919년 이래 서화협회 회원, 선전에 연이어 특선하며 조선시대의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다. 1945년 이후 국전 심사위원, 홍익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작품으로 〈금강산일우金剛山一隅〉(1960), 〈유경幽境〉(1960) 등이 있다.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우남(雩南)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황해도 평산 출생. 외교를 통한 독립을 달성하는 외교독립론을 주장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 2,3대 대통령을 지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로 인해 4 · 19혁명이 발생하면서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이용우(李用雨) 1904-1952 묵로(墨鷺)
화가. 서울 출생. 1911년에 9세의 나이로 서화미술회 1기생으로 입학하여 안중식과 조석진으로부터 전통 화법을 배웠다. 1918년 창립된 서화협회의 최연소로 정회원이 되었고 1923년에는 동연사를 조직해 활동하였다.작품으로 〈추경산수도〉, 〈석란도石蘭圖〉, 〈송학도松鶴圖〉 등이 있다.

이태준 1904-? 상허(尙虛)
소설가. 강원도 철원 출생. 1925년 단편소설 「오몽녀」로 등단하였고, '구인회' 활동을 하였다. 작품으로 「달밤」(1933), 「가마귀」(1936), 「복덕방」(1937) 등이 있다. 해방 후 월북하였다.

인병선(印炳善) 1935- 추경(秋憬)
박물관인 · 민속학자. 평안남도 용강 출생. 시인 신동엽의 아내이다. 1978년부터 짚풀 문화를 조사 · 채록했고 민속지 《생활용구》를 창간했다. 1993년에는 짚풀생활사 박물관을 설립하고, 짚풀문화연구회 회장,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전숙희(田淑禧) 1919-2010
소설가. 함남 원산 출생. 소설 「시골로 가는 노파」(1939)로 등단하였으나, 해방 후 수필가로 활동하였다. 작품집으로 『탕자의 변』(1954), 『삶은 즐거워라』(1972), 『가진 것은 없어도』(1982) 등이 있다.

전영택(田榮澤) 1898-1968 장춘(長春) 추호(秋湖)
소설가목사. 평양 출생. 1919년 《창조》의 동인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1930년 미국에서 흥사단에 입단해 민족운동을 전개하였고 귀국 후 황해도와 평양에서 목사를 지냈다. 1961년에 한국문인협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 「화수분」(1925)이 있다.

전형필(全瑩弼) 1906-1962 간송(澗松)
문화재수집가. 서울 출생. 성북동 북단장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간송미술관)을 세워 수집한 문화재를 보존하였다. 1940년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여 육영 사업에 착수하였고, 1960년에는 고고미술동인회를 발기하였다.

정선(鄭敾) 1676-1759 겸재(謙齋) 난곡(蘭谷)
조선후기 화가. 조선 고유의 산수를 직접 보고 그림에 담는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화풍을 만들었다. 심사정 · 조영석과 함께 삼재三齋로 불렸으며, 강희언과 김윤겸이 정선의 화풍을 따라 정선파로 불렸다. 대표작품으로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청풍계도> 등이 있다.

정지용(鄭芝溶) 1902-1950
시인. 충북 옥천 출생. 1922년 휘문고보를 졸업한 뒤 시작詩作활동을 하였다. 1939년부터는 《문장》의 시 부문 추천위원이 되어 조지훈 · 박목월 등을 등단시켰고, 1945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작품으로 「향수」(1927)와 시집 『정지용시집』(1935), 『백록담』(1941) 등이 있다.

정태용(鄭泰榕) 1919-1972
문학평론가. 경남 진양 출생. 본명은 태泰. 《시림詩林》동인으로 1939년 《시림》창간호에 시 「무등無燈의 터널」을 발표하면서부터 등단하였다. 광복 후 《예술부락》 동인으로 「문학의 대중성」을 발표하며 평론활동을 하였고, 1957년부터 《현대문학》에 「현대시인연구」를 연재하여 주요 시인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였다.

조병화(趙炳華) 1921-2003 편운(片雲)
시인. 경기도 안성 출생.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1949)을 발간하며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인간고도』(1954), 『낮은 목소리로』(1962), 『어머니』(1973), 『후회없는 고독』(1990) 등이 있다.

조석진(趙錫晋) 1853-1920 소림(小琳)
화가. 황해도 옹진 출생. 조선 도화서의 마지막 화원이다. 1902년 고종의 어진도사 御眞圖寫의 화사畵師로 선발되며 화명을 높였다. 1911년부터 서화미술원의 교수를 지내고, 1919년에는 서화협회를 결성하고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작품으로 〈운산서식도雲山棲息圖〉, 〈이어도鯉魚圖〉(1918) 등이 있다.

조연현(趙演鉉) 1920-1981 석재(石濟)
문학평론가. 경남 함안 출생. 1945년 김동리 등과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고 잡지 《예술부락》을 창간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2년에는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로 『문학과 사상』(1948), 『한국현대문학사』(1961), 『조연현문학전집』(1977) 등이 있다.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시인 · 국문학자. 경북 영양 출생. 본명은 동탁東卓. 1939년 「고풍의상」과 「승무」, 1940년 「봉황수」가 《문장》에 실리며 문단에 등단했다. 박두진 · 박목월함께 청록파로 활동했으며, 한국 시인협회장,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작품으로 『풀잎단장』(1952), 『조지훈시선』(1956) 등이 있다.

조태일(趙泰一) 1941-1999 죽형(竹兄)
시인. 전남 곡성 출생. 1964년 《경향신문》에 시 「아침 선박」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69년부터 《시인》의 주간을 지냈으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회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식칼론』(1970), 『가거도』(1983), 『풀잎은 꺾이지 않는다』(1995) 등이 있다.

주요섭(朱耀燮) 1902-1972 여심(餘心)
소설가. 평양 출생. 3 · 1운동 때 지하신문을 발간하다가 상해로 망명한 후 1928년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였다. 1931년 《신동아》의 주간으로 일하였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국장, 한국문학번역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작품으로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 『아네모네의 마담』(1936) 등이 있다.

주요한(朱耀翰) 1900-1979 송아(頌兒)
시인 · 언론인 · 정치가. 평양 출생. 소설가 주요섭의 형이다. 1919년 《창조》 창간호에 시 「불놀이」를 발표하였다.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안창호 이광수와 교류하였고 귀국 후 언론과 정치, 상공업 분야의 중역을 지냈다. 그러나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전향하여 친일단체의 간부를 지냈다.

채동선(蔡東鮮) 1901-1953
작곡가. 전남 보성 출생. 독일에서 바이올린과 음악이론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 독주회(4회)를 열었고, 많은 독창곡을 작곡하였다. 작품으로 가곡 〈추억〉, 〈동백꽃〉, 〈그리워〉, 〈향수〉 등이 있다.

천경자(千鏡子) 1924-
화가 · 수필가. 전남 고흥 출생. 도쿄여자미술대학에서 유학하였다.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꽃과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이 유명하다. 한국전쟁 이후 문학잡지에 수필을 발표하며 『여인소묘』, 『천경자 남태평양에 가다』 등 수필집도 발간하였다.

천상병(千祥炳) 1930-1993 심온(深溫)
시인 · 평론가. 일본 출생. 《문예》에 「강물」(1949), 「갈매기」(1952)가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대표작으로 「귀천」, 시집으로 『새』(1971), 『주막에서』(1979),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1984) 등이 있다.

최범술(崔凡述) 1904-1979 효당(曉堂) 금봉(錦峯)
승려 · 독립운동가 · 정치가. 경남 사천 출생. 1916년 사천 다솔사로 출가하였다. 독립운동을 하며 불교계 비밀결사인 만당卍黨에서 활동하였고,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 대한불교단체 대표와 해인사 주지를 지냈고, 이듬해 제헌의원에 당선되었다.

최순우(崔淳雨) 1916-1984 혜곡(兮谷)
미술사학자. 개성 출생. 본명 희순熙淳.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다. 한국미술을 외국에 알리고 우리나라 박물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저서로 『최순우전집』(5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등이 있다.

최우석(崔愚錫) 1899-1965 정재(鼎齋)
화가. 서울 출생. 1915년에 서화미술회강습소에 입학하여 안중식과 조석진에게 그림을 배우고 이상범과 노수현과 함께 교류하였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천작가 · 초대작가 심사 위원을 역임하였다. 영모翎毛와 인물화에 능하였고, 대표작품으로 〈을지문덕 초상〉(1932), 〈전가풍미田家風味〉(1959) 등이 있다.

최인욱(崔仁旭) 1920-1972
소설가. 경남 합천 출생. 1938년 매일신보에 단편 「시들은 마음」이 입선, 이듬해 「월하취적도」를 《조광》에 발표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7년 한국자유문학가협회 중앙위원, 1966년 한국문인협회 이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작품으로 「개나리」(1948), 『화려한 욕망』(1958) 등이 있다.

평산정십(平山政十) 1880-?
일본 나가사키현 출생. 1897년 서울로 건너와 조선 목축업을 하던 아버지 평산정길[平山政吉]의 사업을 도왔다. 러일전쟁 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무역 사업을 하다 1908년 부친이 사망한 이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평산목장平山牧場을 경영하였다.

피천득(皮千得) 1910-2007 금아(琴兒)
서울 출생. 시인 · 수필가. 1930년 《신동아》에 시 「서정소곡」으로 등단한 후 「소곡」(1931), 「가신 님」(1932), 「눈보라치는 밤의 추억」(1933) 등을 발표하여 시인과 수필가로 활동하였다. 작품으로 『은전한닢』(1959), 『수필』(1977), 『삶의 노래』(1994) 등이 있다.

한말숙(韓末淑) 1931-
소설가. 서울 출생. 1956년 「별빛 속의 계절」, 「신화의 단애」가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소설집 『하얀 도정』, 『신화의 단애』, 『이 하늘 밑』 등이 있다.

한용운(韓龍雲) 1879-1944 만해(萬海)
시인 · 독립운동가 · 승려. 충남 홍성 출생. 속명은 유천裕天이다. 출가 후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해 일본으로부터 자주화를 제창하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 시집 『님의 침묵』 등을 남겼다.

현진건(玄鎭健) 1900-1943 빙허(憑虛)
소설가. 대구 출생. 1920년《개벽》에 단편「희생화」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36년 동아일보사 사회부장 당시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의 사진에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후 소설 창작에 전념하였다. 대표작품으로「빈처」(1921),「술 권하는 사회」(1921),「무영탑」(1938~1939) 등이 있다.

홍봉진(洪鳳珍) 1903-1979
정치인 · 교수. 경기 화성 출신. 제4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서울대 · 고려대 · 국민대 · 중앙대 교수, 한국검정교과서 사장, 정일학원 회장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자서전『양촌일지陽村日誌』(1986)가 발간되었다.

황순원(黃順元) 1915-2000
소설가. 평남 대동 출생.1931년에 시「나의 꿈」을《동광》에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36년《창작》에「거리의 부사」를 발표한 후 소설 창작에 전념하였다. 작품으로「목넘이 마을의 개」(1948),『카인의 후예』(1954),「소나기」(1959) 등이 있다.

돈암동수정 2012.12.285:15PM 페이지123

참고 · 인용자료

※각주

■ 되너미고개에서 아리랑고개까지, 돈암동을 걷다

1. 미아리는 숙종 37년(1711)부터 기록에 나타나는데 '彌阿里 · 尾阿里 · 渼阿里' 등 한자의 표기는 다르나 그 위치와 독음이 모두 동일하다. 미아리彌阿里의 표기방식이 고정된 것은 고종 2년(1865)에 편찬한 「육전조례六典條例」이후부터이다. 미아리 지명은 이 지역에 있던 사찰 '미타사彌陀寺(이후 미아사彌阿寺)' 에서 비롯되었다. 통일신라 654년(진덕여왕 8)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미타사' 는 여러 차례 중수되었는데, 조선 말기 무학대사가 절을 중수하며 미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찰이 있던 주변마을은 미아골 또는 불당골로 불렸다.
2.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1~39) 참고.
3. 이재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서울 돈암동 흥천사 사하촌〉 기사 인터뷰 중,《주간불교》 2003.05.08
4. 김연갑, 〈아리랑고개, 나운규와 무슨 상관〉 뉴시스, 2012.06.26 /『아리랑 그 맛 멋, 그리고』(집문당, 1989) 재인용
5. 홍봉진 ,『양촌일지』, 일심사, 1986. 91~93쪽.

■ 돈암동 사람들

6. 현재까지 알려진 독립선언서로는 최남선이 쓴 기미독립선언서, 이광수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28독립선언서, 이에 앞서 만주동포들이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등 모두 10여 종이 있다.
   서지학자 김종욱씨가 일본국 내무성 경보국 비밀자료실에서 찾아낸 염상섭이 쓴 독립선서를 1983년 공개하였다. (〈염상섭도 독립선언서 썼다〉, 동아일보, 1983.02.28)
7. 조용만,『구인회 만들 무렵』, 정음사, 1984
8. 〈우리 문학유산을 찾아(16) 횡보 염상섭 말년 보낸 성북동 자택〉(둘째딸 염희영 인터뷰 중), 경향신문, 1996.07.28
9. 주요섭의 등단작이 「깨어진 항아리」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1921년 매일신보 신춘문예 작품에 「깨어진 항아리」라는 작품은 실려있지 않다. '질그릇生'이라는 필명으로 1920년 신춘문예에 3등으로 입선한 「임의떠난어린벗」이 주요섭의 등단작이다.(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39호, 2009)
10. 〈세대의 정답(6) 소설가 주요섭 이호철〉, 동아일보 1963.01.11

11. 수양동우회는 변호사, 의사, 교육자, 목사 등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계몽운동에 앞장선 단체였다. 그러나 중심인물이었던 이광수를 포함해 주요한 등 관련자 181명이 검거된 사건 이후 회원들은 강제 전향 한 뒤 일제에 협력하게 되었다. 작곡가 홍난파, 장로교목사 정인과, 의사인 이용설 등이 대표적이며, 중심인물이었던 이광수와 주요한은 특히 극렬한 친일 행적을 보였다.
12. 그동안 오영수의 출생연도는 1914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민적부에 기재된 그의 생년월일은 '明治四拾貳年貳月拾壹日'이다. 서기로 1909년 2월 11일이다. 작품집에 실린 그의 생존시 출생연도(1914년)는 작가가 늦깎이 문단 등단을 감추려고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이호종, 「난계 오영수론-작가의 문학세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지』26호, 1989)
13. 〈시와 사상성, 기교비평에 충언〉, 동아일보, 1963.12.11
14. 〈나의 남편 신동엽과 '금강'〉, 한겨레, 1994.05.15

※ 자료 출처

인용문과 사진의 출처를 본문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 되너미고개에서 아리랑고개까지, 돈암동을 걷다

10쪽_ 김정호, 〈도성도〉,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2쪽_ 〈경도오부 · 북한산성부도〉, 175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3쪽_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경도한성부조

15쪽_ 최남백, 「식민지」(84회), 동아일보, 1971.04.22

15쪽_ 〈하늘에서 본다(3) 서울의 지붕 위〉, 동아일보, 1962.09.28

16쪽_ 〈돈암.안암.신설 3정町, 주택지분양개시, 부청이나 주택조합에서 간선〉, 매일신보, 1939.04.11

17쪽_ 강영희(돈암동 주민, 한옥전통가옥연구소 소장) 인터뷰, 2012.10.20

18쪽_ 『서울특별시 최신구별행정도』, 경화사, 1982

19쪽_ 산림청 자료

20쪽_ 주요섭, 「길」, 동아일보, 1953.03.10

22쪽_ 손동자(돈암동 주민) 인터뷰, 2012.10.11

23쪽_ 강영희(돈암동 주민, 한옥전통가옥연구소 소장) 인터뷰, 2012.10.20

25쪽_ 『서울 폐허를 딛고 재건으로 1957-1963』, 서울시역사박물관, 2011
26쪽_ 박완서,『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지식하우스, 2005
28쪽_ 강영희(돈암동 주민, 한옥전통가옥연구소 소장) 인터뷰, 2012.10.20
29쪽_ 이용규(前 돈암동 주민, 화가) 인터뷰, 2012.12.05
29쪽_ 〈잠망경〉, 경향신문, 1954.09.12
30쪽_ 신상성, 〈회갑과 구두〉, 동아일보, 1980.08.30
32쪽_ 최일남, 「돈암동」, 《현대문학》, 2004.11.
33쪽_ 신문광고, 1948년
33쪽_ 동아일보, 소형광고, 1948.02.20
35쪽_ 홍봉진,『양촌일지』, 일심사, 1986
37쪽_ 이용규(前 돈암동 주민, 화가) 인터뷰, 2012.12.05
39쪽_ 박경리, 「돈암동 거리」, 『우리들의 시간: 박경리 시집』, 마로니에북스, 2012

■ 돈암동 사람들

41쪽_ [호원숙 제공]
43쪽_ 『소정, 길에서 무릉도원을 보다』, 국립현대미술관, 2006
45쪽_ 〈봄을 바라보는 아틀리에-소정화실의 변관식〉, 동아일보, 1972.01.11
46쪽_ 변관식, 〈소정의 변〉, 동아일보, 1957.04.10
48쪽_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1988
49쪽_ 최구, 〈겨울철장식〉, 동아일보, 1969.01.23
51쪽_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53쪽_ 〈기획특집1:작고문인 집중조명 - 염상섭의 문학과 생애〉, 《문예운동》, 2009
54쪽_ 염상섭, 〈아호와 인생〉, 동아일보, 1963.03.14
55쪽_ 「편지展」, 한국현대문학관 2012 특별전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59쪽_ 사진:『사랑 손님과 어머니』, 정음사, 1973
59쪽_ 주요섭, 〈신동아의 초창기〉, 동아일보, 1964.08.22
60쪽_ 『사랑 손님과 어머니』, 정음사, 1973
60쪽_ 〈주요섭의 문학과 생애〉, 동아일보, 1972.11.16
63쪽_ 《대산문화》, 2009 여름호
64쪽_ 사진:《대산문화》, 2009 여름호

돈암동수정 2012.12.285:15PM 페이지126

65쪽_ 김내성, 「나의 아내를 말함」, 1952

66쪽_ 《계간 판타스틱》, 2009, 봄호

69쪽_ 조선일보. 1929. 11. 10

70쪽_ 『오영수 전집』1, 현대서적, 1968

71쪽_ 「속, 낙향산고」, 1977

72쪽_ 오영수, 『메아리』, 현대문학, 1959

73쪽_ 『오영수 전집』1, 현대서적, 1968

75쪽_ 조병화,『떠난 세월 떠난 사람』, 현대문학사, 1989

76쪽_ 순애보 영화포스터, 1957

77쪽_ 전숙희, 〈별은 이제 어디에 박계주씨의 영전에 붙여〉, 경향신문, 1966.04.11

79쪽_ 『김동리전집8-나를찾아서』,민음사, 1997

80쪽_ 김동리, 『혈거부족』, 백민7호, 1947

81쪽_ 『김동리전집8-나를찾아서』,민음사, 1997

82쪽_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추억」, 『영원으로 가는 나귀』, 2005

83쪽_ 『김동리전집8-나를찾아서』,민음사, 1997

84쪽_ 신동엽, 「서둘고 싶지 않다」, 동아일보, 1962.06.05

85쪽_ 『시인 신동엽』, 부여문화원, 2005

86쪽_ 『시인 신동엽』, 부여문화원, 2005

87쪽_ 신정섭, 〈대지를 아프게 한 못 하나 아버지 얼굴가에 그려 넣고〉,『월간독서』, 1979

88쪽_ 『시인 신동엽』, 부여문화원, 2005

91쪽_ [호원숙 제공, 한영희 촬영]

92쪽_ [호원숙 제공]

93쪽_ [호원숙 제공, 한영희 촬영]

94쪽_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8

96쪽_ [토지문화관 제공]

98쪽_ [정지용문학관 제공]

101쪽_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8

104쪽_ 문화재청 홈페이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촬영]

104쪽_ 『돈암본당삼십년사』, 천주교서울대교구돈암동교회, 1985

110쪽_ 고은, 『상화시편』, 창비, 2011

돈암동수정 2012.12.285:15PM 페이지127

조사개요

기　　간 : 2012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
발　　주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혜곡최순우기념관)
감　　수 : 김인회(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이사장, 혜곡최순우기념관 관장)
기획 · 원고 : 심지혜, 송지영(혜곡최순우기념관)
그　　림 : 이용규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
강영희, 박이순, 손동자, 이용규, 장석수, 정순기

자연과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 기부 ·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전 · 관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최순우 옛집(시민문화유산 1호)'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유산 : 최순우 옛집, 도래마을 옛집,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26-20 '최순우 옛집' | 02-3675-3401~2
http://www.nt-heritage.org | http://cafe.naver.com/ntchfund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297069 (예금주: 내셔널트러스트문화)

돈암동

잊혀져 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발　　행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　　관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기획 · 원고　심지혜, 송지영

그　　림　이용규

제　　작　연두와파랑 02 3446 4738

디 자 인　여순임

발 행 일　2012. 12. 28